

제5장 오천면(鰲川面)

본래 오천군 지역으로 오천군의 동쪽이 되므로 천동면(川東面)이라 하여 군서(郡西), 군동(郡東), 내웅(內雄), 울변(栗邊), 갈마연(葛馬淵), 우티(牛峙), 석소탕(石所湯), 우포(牛浦), 진곶지(津串之), 호포(狐浦), 심동(深洞), 수정(水晶), 선동(蟬洞), 오동(烏洞), 양촌(陽村), 금암(金岩), 웅포(雄浦), 호접(蝴蝶), 김신(金神), 교동(校洞), 태현(台峴), 연정(蓮亭), 갈두(葛頭), 지동(芝洞), 석현(石峴), 산수(山水)의 27개 동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하남면(河南面)의 효자도(孝子島), 육도(陸島), 추도(抽島), 월도(月島), 소도(蔬島), 목도(鷺島), 안마도(鞍馬島), 흑도(黑島), 목도(木島), 허육도(虛陸島), 삼형제도(三兄弟島), 몽덕도(蒙德島), 황도(黃島), 선촌(船村), 진곶지(津串之), 점촌(點村), 진촌(鎭村), 초전(草箭), 사창(射倉), 구티(鳩峙), 저두(豬頭), 외죽도(外竹島), 증도(甌島), 군관도(軍官島)의 24개리와 하서면(河西面)의 고대도(古代島), 외검도(外檢島), 외장고도(外長古島), 삽시도(插矢島), 불모도(佛謀島), 오도(烏島), 납대지도(納大只島), 녹도(鹿島), 호도(狐島), 석도(石島), 화사도(華沙島), 길산도(吉山島), 외점도(外點島), 명덕도(明德島), 외연도(外烟島), 횡견도(橫見島), 황도(黃島), 오도(梧島)의 18개 리와, 보령군 장척면의 조곡(鳥谷), 구수(九水)의 2개 동리를 병합하여 오천군의 이름을 따라 오천면이라 하여 보령군에 편입되어 소성(蘇城), 영보(永保), 오포(烏浦), 교성(校成), 갈현(葛峴), 효자도(孝子島), 원산도(元山島), 삽시도(插矢島), 녹도(鹿島), 외연도(外烟島)의 10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의 일부 개편으로 삽시도리 내의 외파수도(外波水島)·내파수도(內波水島)·외도(外島)를 서산군 안면면에 이관하고 갈현리(葛峴里)를 분할하여 갈현 2리 즉, 蓮亭(연적굴)·葛頭(척머리)·芝洞(가줄)을 분리하여 주포면에 이관하였다.

- 천동면(川東面) : 현재 오천면의 육지부. 면소재지는 오천면 소성리. <1911, 朝鮮地誌資料>
- 하남면(河南面) : 현재의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삽시도, 전라북도 연도, 개야도 등 육지와 인접한 섬. 면소재지는 원산도의 진촌. <1911, 朝鮮地誌資料>

- 하서면(河西面) : 현재의 오천면 고대도 · 장고도 · 독도 · 외연도, 전라북도 어청도 등 멀리 떨어진 섬. 면소재지는 녹도. <1911, 朝鮮地誌資料>

1. 갈현리(葛峴里)

본래 오천군 천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정리(蓮亭里), 갈두리(葛頭里), 지동(芝洞)과 석현리(石峴里), 산수동(山水洞)의 각 일부와 보령군 장척면(長尺面) 구수동(九水洞) 일부를 병합하여 갈두(葛頭)와 석현(石峴)의 이름을 따서 갈현리라 하여 보령군 오천면에 편입하였다.



방솔나무(2007)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의 일부 개편으로 갈현리를 분할하여 당시 2구였던 蓮亭(연정동) 葛頭(찰머리) 芝洞(가죽)을 분리, 주포면에 이관하였다. 현재 산수굴 마을과 돌고개 마을로 이루어진 오천면에서 가장 작은 리(里)이다.

- 갈현리 : 1반 불고개, 2·3반 산수동.
- 고랑말 : 돌고개 마을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산수굴과 통한다.
- 대양산 : 산수굴 남서쪽에 있는 산.
- 돌고개 : 갈현리의 북쪽 청소면과의 경계에 있는 마을.
- 돌고개 : 돌고개 마을 입구에 있는 고개. 산허리를 돌아 오천면 소재지로 가는 고개이다. 현재는 ‘돌고개’라는 말이 고개 이름보다는 마을 이름으로 많이 사용된다.
- 무님이 : 돌고개 마을 입구에 있는 돌고개를 부르는 다른 이름.
- 방솔나무 : 산수굴 마을 앞에 있는 신천강씨 묘지 앞에 있는 소나무. 소나무가 향나무처럼 넓게 퍼져 있어 독특하다.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 방아다리 : 돌고개 마을의 남동쪽 주포면과의 경계에 산재되어 있는 가옥들을 통칭하는 마을 이름.
- 산수굴 : 갈현리 남쪽에 있는 마을. 마을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어 통상 ‘이짜말’ ‘저짜말’로 나누어 부른다. 신천 강 씨가 세거한 집성촌이다.
- 산수동(山水洞, 산수골) : 산수굴 <1911, 朝鮮地誌資料>
- 석현(石峴) : 돌고개 마을의 한자 표기. 돌고개를 말하기도 함.

- 심박굴 : 산수굴의 동쪽 끝 주포면과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안에는 작은 소류지가 있다.
- 안산 : 돌고개와 자시미 사이에 있는 산.
- 이짜말 : 산수굴의 남쪽 마을. 남쪽 마을에서 부를 때 ‘이짜말’이라고 부른다. 북쪽 마을에서는 반대이다.
- 자시미 : 돌고개 마을의 남쪽 산수굴과의 사이에 있는 마을. 3~4가구가 거주한다.
- 자시미고개 : 돌고개 마을에서 자시미 마을로 통하는 고개.
- 저짜말 : 산수굴의 북쪽 마을이다. 산수굴의 남쪽 마을에서 부를 때 저짜말이다. 북쪽 마을에서는 반대로 부른다.
- 정자나무 : 돌고개 마을 입구에 있는 나무.
- 정주백이 : 돌고개 마을 앞, 즉 남쪽에 있는 들.
- 줄바위 : 돌고개 마을 북쪽 교성리와의 경계에 있는 바위.
- 통굴 : 갈현리 산수굴에서 교성리 방죽굴로 통하는 골짜기.
- 통굴고개 : 갈현리 산수굴에서 교성리 방죽굴로 통하는 고개.

2. 교성리(校成里)

본래 오천군 천동면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웅포동(雄浦洞), 호접동(蝴蝶洞), 김신리(金神里), 태현리(台峴里), 내옹리(內雄里), 금암리(金岩里) 일부와 보령군 장척면(長尺面), 오곡리(烏谷里) 일부를 병합하여 교성리라 해서 보령군 오천면에 편입되었다.

- 가지랑굴 : 김신 위뜸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 방죽굴로 통한다.
- 가지랑굴 : 방죽굴저수지 북쪽 골짜기에서 김신 위뜸으로 통하는 골짜기.
- 간사지 : 소루구지 북쪽 간척지의 서쪽에 있는 마을.
- 간사지 : 소루구지 앞에 있는 간척지.
- 간사지 : 웅개 마을 동북쪽에 있는 간척지의 주변 마을. 마을 앞이 청소면과 경계 되어 마을만 오천면에 속하고, 마을 앞 간척지는 모두 청소면에 속한다.
- 개도러 : 웅개의 북쪽 간사지 마을의 남쪽 산 모퉁이.
- 개도러논 : 웅개의 북쪽 간사지 마을의 개도러 남쪽에 있는 논.
- 고래굴 : 교성리 김신 큰고개고랑의 입구.

- 공동묘지 : 새들 마을과 참새골 사이에 있는 산.
- 공동묘지고개 : 새들에서 참새골과 보건농장으로 통하는 고개. 공동묘지의 밑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교동(校洞) : 교성리 향교굴의 한자 표기. 1901년에 향교가 만들어짐.
- 교동(校洞, 상격골) : 향교굴. <1911, 朝鮮地誌資料>
- 국말고랑 : 교성리 김신 윗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 상사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를 오르면 소성리 큰산낙골, 작은산낙골과 통한다.
- 국사봉 : 선림사의 남쪽 봉우리. 웅개와 호쩍굴의 꼭대기이다.
- 금신리(金神里, 금신리) : 김신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금오농장 : 소루구지 마을 앞, 청소면과 연결하여 막은 간척지를 부르는 이름. 일제 시대 금오농장에 속하였다.
- 김신(金神) : 옛날에 김신부곡(金神部曲)이 설치되었던 곳이라고 전한다. 보건진료소가 있는 교성리의 중심 마을이다. 위뜸, 아래뜸, 속뜸으로 구분된다. 교성초등학교가 있었으나 폐교되었다.
- 김신고개 : 방죽굴 저수지 북쪽 골짜기에서 김신 위뜸으로 통하는 고개.
- 내웅(內雄) : 안웅개의 한자 표기.
- 당모랭이 : 웅개에서 호쩍굴로 들어가는 산 모퉁이.
- 대양산 : 교성리 지장굴과 갈현리 산수굴 사이의 산.
- 도미항 : 교성리의 북쪽 끝에 있는 포구 마을. 천수만 안에 있는 빙도와 다리로 연결되었다.
- 돌고개 : 호쩍굴에서 갈현리 돌고개 산수굴로 넘어가는 고개.
- 돌고개고랑 : 호쩍굴에서 갈현리 돌고개, 산수굴 쪽으로 넘는 고개가 있는 골짜기.
- 되미망 : 도미항의 다른 이름. 주민들은 보통 되미망으로 부른다.
- 뒹망 : 도미항의 다른 이름.
- 뒷고랑 : 교성리 김신 마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큰고개고랑과 시영굴고랑 사이에 있다.
- 똥섬 : 참새골 마을 북쪽 보건농장 가운데에 있는 섬으로 똥무더기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보건농장의 간척으로 육지가 되었다. 요즈음 거의 원형을 잃었다.
- 밧웅개 : 웅개의 큰 마을.
- 방죽굴 : 김신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수굴로 통하는 포장도로가 있고 증굴을 지나 호쩍굴로도 통한다. 주민의 거주는 없고 방죽굴 저수지가 있다.
- 방죽굴고개 : 호쩍굴에서 방죽굴로 넘어가는 고개.

- 방죽굴저수지 : 방죽굴에 있는 저수지
- 방축언(坊築堰, 방죽골) : 방죽굴 저수지 자리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지리지 기록에 의하면 기축년(1889) 매립되어 국유지가 되었다.
- 발다랭이 : 교성리 향교굴과 지장굴 사이에 있는 논이다. 밭이었다가 경지정리로 모두 논이 되었다. 밭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보건농장 : 참새골 앞에 있는 간척지를 부르는 이름. 소화 10년(1935) 주사 권중욱(權重旭)이 막았다.
- 북덕재 : 오포리 사락배 마을에서 큰고개로 이어지는 산 길. 초분고랑의 위로 나 있다.
- 산수굴 : 소루구지의 남서쪽 골짜기. 국사봉에서 내려온 골짜기이다.
- 산수굴재 : 교성리 김신과 갈현리 산수굴 사이의 고개. 통굴재라고도 한다.
- 산수굴재 : 교성리 지장굴 안고랑에서 갈현리 산수굴로 통하는 고개.
- 산수동현(山水洞峴, 산수고지) : 교성리 방죽굴에서 갈현리 산수굴로 넘어가는 고개. <1911, 朝鮮地誌資料>
- 삼굿뿌리 : 교성리 향교굴 입구에 있는 돌출부이다. 옛날 이곳에서 삼(麻)을 익혔다고 전한다.
- 새굴댕이 : 웅개의 북서쪽 국사봉 밑에 있는 마을. 안웅개라고도 한다.
- 새들 : 금오농장 서쪽 산밑으로 산재되어 있는 마을. 청소면과의 접경에 있다.
- 생적굴 : 교성리 김신과 지장굴 사이에 있는 오천향교가 있는 마을이다. 오천향교는 1901년에 생겼다.
- 서낭댕이 : 방죽굴고개의 꼭대기에 있다. 호쩍굴 사람들이 위하던 서낭댕이이다.
- 서낭댕이 : 호쩍굴 마을에서 토골로 통하는 고개의 꼭대기에 있었다.
- 서룡곡(棲龍谷) : 소루구지의 한자 표기. 서룡곶(棲龍串)이라고도 표기한다.
- 선바위 : 도미항의 서쪽 끝에 있던 바위. 부수어서 없어졌다.
- 소루구지 : 교성리의 웅개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서쪽 산 중턱으로 주포-오천 간 도로가 지난다.
- 속뜸 : 교성리 김신 마을의 가운데 부분.
- 숙구레 : 김신 속뜸과 앞산의 초분고랑 사이에 있는 들.
- 시영굴고랑 : 교성리 김신 위뜸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뒷고랑과 안탁굴 사이에 있다. 비교적 깊은 골짜기이다. 아래에 저수지가 있다.
- 시영굴저수지 : 시영굴고랑에 있는 저수지.
- 시영산 : 참새골 남쪽에 있는 산 봉우리.

- 시영산고랑 : 시영산에서 참새골 마을 쪽으로 난 골짜기.
- 아래뜸 : 교성리 김신 마을의 남쪽 부분. 교성초등학교가 있다가 폐교되었다.
- 안고랑 : 지장굴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 태봉산 서쪽에 있는데 태봉산과 대양산 뒷산 사이에 있으며, 입구는 좁고 안은 넓은 골짜기이다.
- 안소루구지 : 도미항 남쪽 언덕 너머에 남향으로 있는 마을. 일제 시대 마을 앞에 건설한 간척지인 보건 농장 때문에 들어선 마을이다.
- 안웅개 : 웅개의 새굴뎡이를 부르는 다른 이름.
- 안지장굴고랑 : 교성리 지장굴 화개고랑의 동쪽 골짜기. 오포리 가그말에서 부르는 이름.
- 안탁굴 : 교성리 김신 윗말의 북쪽 국말고랑과 시영굴고랑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앞산 : 교성리 김신 마을과 방죽굴 사이에 있는 산.
- 앞산 : 호쩍굴 동쪽 즉 갈현리 돌고개 사이에 있는 산.
- 연적굴재 : 교성리 지장굴 안고랑에서 태봉산 정상 남쪽을 통하여 주포면 연지리 연적굴로 통하는 재.
- 웅대굴 : 교성리 향교굴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중간에 샘이 있다.
- 외웅(外雄) : 밧웅개
- 웅개 : 교성리 북쪽 호쩍굴과 소루구지 사이에 있는 큰 마을. 주포-오천간 도로변에 있다.
- 웅포(雄浦) : 웅개의 한자 표기.
- 웅포동(雄浦洞, 웅기) : 웅개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원뚝 : 소루구지 마을 북쪽, 도미항 동쪽에 있는 금오농장 간척지의 둑.
- 원뚝 : 소루구지 마을 북쪽에 있는 옛날에 막은 간척지의 둑. 금호농장의 건설로 기능을 잃었다.
- 원안고랑 : 소루구지 마을과 웅개 마을 사이에 있는 골짜기. 석면 광산이 있었고 석면을 캐낸 웅덩이가 있다.
- 윗골 : 호쩍굴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위뜸 : 교성리 김신 마을의 북쪽 부분.
- 장승백이 : 교성리 향교굴과 지장굴 사이에 있는 낮은 언덕. 현재는 모두 밭으로 이용된다. 옛날에 장승이 서 있었다고 한다.
- 절산 : 호쩍굴 남동쪽에 있는 주마산의 아랫부분. 과거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산의 아래에 옛 절터가 있다.
- 절재 : 교성리 김신 위뜸 탑골고랑에서 소성리 선림사로 이어지는 고개.

- 주마산 : 호쩍굴 남동쪽 갈현리 산수굴과의 경계에 있는 산.
- 주막고개 : 웅개의 북쪽에 있는 언덕. 옛날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중미고랑 : 교성리 지장굴 서쪽의 골짜기에 있는 들. 논으로 이루어져 있다.
- 증굴 : 방죽굴 저수지의 북쪽 골짜기. 호쩍굴과 통한다.
- 지레기산 : 웅개 마을 북쪽, 웅개와 간사지 사이에 있는 산.
- 지장굴 : 교성리의 최남단에 있는 큰 마을이다. 과거에는 오천의 충청수영과 대천 남포 쪽으로 통하는 큰 길이 지나던 마을이다.
- 지장굴저수지 : 지장굴 동쪽 안고랑 입구에 있는 저수지.
- 참새골 : 소루구지 북서쪽에 있는 마을. 소성리와 경계한다. 마을의 가운데에 참샘이라는 좋은 샘이 있어 참새골로 불리다가 변하여 참새골로 부른다고 한다.
- 참새골저수지 : 참새골 마을 아래에 있는 저수지
- 참샘 : 참새골에 있는 샘. 물이 참. 근래 마을 위쪽의 레미콘 공장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 참샘골 : 참새골의 다른 이름.
- 천동리평(川東里坪, 청동리평) : 교성리 들. <1911, 朝鮮地誌資料>
- 초분고랑 : 교성리 김신 아래뜸의 서쪽에 난 골짜기. 큰고개고랑의 남쪽이다. 옛날 초분이 많았다고 전한다.
- 초분고랑 : 김신 마을 서쪽 앞산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초분을 많이 했었다고 전한다.
- 큰고개 : 교성리 김신 마을과 영보리 솟재 마을이 통하는 고개.
- 큰고개 : 소루구지에서 참새골로 넘어가는 고개. 원래는 현 도로 북쪽에 있는 고개를 부르는 이름. 현재의 포장도로로 소루구지-참새골 구간을 큰고개라고 한다.
- 큰고개고랑 : 교성리 김신 서쪽에 있는 골짜기. 큰고개를 통하여 영보리 솟재마을로 통한다.
- 탑골고랑 : 김신 위뜸에서 동북쪽으로 난 골짜기. 골짜기를 따라 재를 넘으면 소성리 선림사에 이른다. 밑에는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위에는 옛 절터가 있다. 깊은 골짜기이다.
- 태봉고개 : 지장골에서 주포면 연지리로 넘어가는 고개.
- 태봉산 : 교성리와 주포면 연지리 사이에 있는 산.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꼭대기에는 테피식 석성(石城)이 있다.
- 태현(台峴, 胎峴) : 지장골의 다른 이름.
- 태현리(台峴里, 지장동) : 지장골 <1911, 朝鮮地誌資料>

- 토골 : 호쩍굴 입구 웅개 쪽에 있는 골짜기. 국사봉으로 뺀 골짜기이다.
- 퇴미산고랑 : 교성리 남쪽 끝 오포리 사락배와의 경계 지역에 있는 골짜기. 초분고랑의 남쪽이다.
- 학교앞들 : 김신 교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들.
- 학우현(鶴羽峴, 히우고기) : 생겨굴에서 주포면 연지리 가줄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현재는 '하고개'라고 부름 <1911, 朝鮮地誌資料>
- 함박굴고개 : 교성리 김신 아래뜸의 북쪽 골짜기.
- 향교굴 : 교성리 지장굴과 김신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 향교가 있어서 부르는 이름이다. 향교는 충청수영이 폐지된 후, 오천군이 생겨나던 1901년에 세웠다.
- 홀아비고랑 : 지장굴 화개고랑의 서쪽 골짜기. 오포리 가그말에서 부르는 이름.
- 호접동(蝴蝶洞, 호접굴) : 호쩍굴. <1911, 朝鮮地誌資料>
- 호쩍굴 : 교성리의 김신과 웅개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 훗내뿌리 : 김신 아래뜸 앞 농협창고 쪽으로 내민 언덕을 말함.
- 화개고랑 : 교성리 지장굴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 화개재 아래에 있다.
- 화개재 : 교성리 지장굴에서 화고개골을 통하여 주포면 연지리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에는 오천 충청수영에서 솟재와 이 고개를 통하여 대천 남포 방향으로 이어졌으며, 교성 오천 사람들이 대천장을 보러 갈 때 넘어다니던 고개이다.



참새골 샘(1995)



김신마을 불상(1999)

3. 녹도리(鹿島里)

본래 오천군 하서면(河西面)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녹도리(鹿島里), 호도리(狐島里), 석도(石島), 화사도리(華沙島里), 길산도(吉山島), 외점도(外點島), 명덕도(明德島)를 병합해서 녹도리라 해서 보령군 오천면에 편입하였다.

- 기름암 : 추녀
- 너분여 : 용섬(龍島)과 녹도 사이에 있는 4개의 바위섬이다. 각각 큰너부녀, 작은너부녀, 안너부녀, 밖너부녀라고 불린다. 해도에는 상홍서, 하홍서로 표기되어 있다. 만조 때에는 물속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노출되며, 조금 때에는 언제나 노출되는 바위섬이다.
- 밖너분여 : 큰너분여 서쪽에 있는 작은 바위섬.
- 상홍서(上洪嶼) : 작은너부녀의 한자식 표기.
- 안너부녀 : 큰너부녀 동쪽, 작은너부녀 남쪽에 있는 작은 바위섬.
- 용섬(龍島) : 녹도(사슴)와 다보도(다슬기) 사이에 있는 섬으로 주민들은 ‘용섬’이라고 부른다. 오천면 녹도리 산 28번지이다. 용섬의 동쪽은 ‘용섬셋골’이라고 불리는 깊은 골짜기를 이루어 고정항으로 출입하는 대형 선박의 항로로 이용되고, 과거에는 어로 장소로 이용되었다. 주변에 섬이 없어 항해하는 데 이용된다. 옛날에는 8월, 9월 돌풍이 발생될 때면 큰 물줄기가 꼬리 부분은 물속에 묻히고 머리 부분은 구름 속에 묻혀, 마치 두 마리의 용이 물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현상이 약 10여 분 정도 지속되었다고 하는데, 해방 무렵만 해도 그런 현상이 자주 있었으나 요즘은 전혀 볼 수가 없다. 용이 올라갈 때는 마을의 어른들은 아낙네들이 검은 치마를 입고 대문 밖을 나서지 못하게 했었다. 그래서 용섬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 추녀(기름암) : 녹도리 추도와 삼시도리 외고도(용매기) 사이에 있는 섬으로 오천면 녹도리 산 30번지이다. 주민들은 ‘추녀’라고 부르는데 나무는 없다. 해삼, 전복 등을 양식하고, 굴을 채취한다.
- 용섬새골 : 용섬(龍島)과 다슬기(多寶島) 사이에 있는 깊은 바다 골. 고정항을 출입하는 외항선의 항로이다.
- 질땀 : 추도
- 추도(질땀) :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호도 동쪽, 기름암(추녀)과의 사이에 있는 섬이다. 녹도리 산 3번지이다. 호도에서 보기는 마치 소가 짐을 짊어지고 육지로 나가는 모양이라 하여 ‘질땀’이라 했고, 산이 몹시 가파르고 뽕쪽하여 송곳을 의미하는 錐字(추자)를 써서 추도라고 부른다고 한다. 옛날 녹도는 부유했었는데, 호도는 빈곤하여 질땀이 짐을 짊어지고 육지로 나가는 형이라 빈곤했다는 전설도 있다. 해안은 모두 절벽이고 중심부에 약간의 나무가 자란다.
- 큰너부녀 : 너분여의 가운데에 있는 가장 큰 바위섬. 하홍서
- 하홍서(下洪嶼) : 큰너부녀의 한자식 표기.

1) 녹도(鹿島, 사슴)

호도 남쪽에 있는 오천면 녹도리의 중심 섬이다. ‘사슴’이라 불렀는데 한자로 녹도(鹿島)라 표기하였다. 과거부터 주변 섬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1901년 오천군이 생기면서 오천군 하서면의 중심지였다. 경사가 급한 섬으로, 농경지는 적으나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주민이 거주한다.

- 갈매기섬 : 녹도 마을 북쪽에 있는 섬. 염샘이 남쪽 뱃배의 북쪽에 있다.
- 갑진배 : 녹도의 북쪽에 있는 바위.
- 공동묘지 : 녹도의 북쪽 산 능선. 망재와 해막태 사이에 있다.
- 공산재 : 녹도 마을 서쪽에 있는 산봉우리. 꼭대기에는 삼각점이 있다.
- 굴변데기 : 녹도 남쪽 해안. 삼형제바위의 서쪽에 있다.
- 낭낙뿌리 : 녹도 북동쪽 끝의 뾰족한 부분.
- 넙덕여 : 녹도의 서쪽에 있는 모섬(毛島) 남쪽에 딸린 바위 너덜.
- 넙배 : 녹도 마을 북쪽에 있는 바위. 갈매기섬과 대섬너머 사이에 있다.
- 노랑배너머 : 녹도 동남쪽 선착장 남쪽 지역.
- 녹도리(鹿島里, 시심) : 녹도. <1911, 朝鮮地誌資料>
- 농여 : 녹도의 북쪽에 간조 때 나타나는 돌무더기.
- 달밭재 : 녹도의 서북쪽 해안이다. 텃샘밭과 하나실 사이에 있다.
- 당산 : 녹도의 북쪽에 있는 산. 이곳에서 당제를 지냈다.
- 당재 : 녹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당산의 남쪽에 있다.
- 대섬너머 : 녹도 마을 해안. 넙배와 선착장 사이를 말함.
- 도투걸 : 녹도의 서쪽 선창골과 봉화산 사이에 있는 평평한 곳.
- 독섬 : 녹도 마을 바로 앞에 있는 섬이다. 옛날부터 이 섬과 작은화사리(소화사도) 사이에 주목망을 매어 조기를 잡았기 때문에 어업상 중요하기도 하였고, 포구 앞에 있는 섬이라 방파제 역할을 하고, 밀물, 썰물 때 이 섬을 끼고 도는 물 흐름을 이용하여 배가 움직였다. 녹도 포구에서 아주 중요한 섬이다.
독섬에서는 예부터 당제를 지냈다. 본섬(녹도)의 당제와 맞추어 제를 올렸는데, 제를 올리는 신호는 본섬(녹도)에서 징을 쳐 알렸다. 당제의 목적은 주변에 있는 그물(주목망)에 고기가 많이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예부터 이 섬을 신성시 하여 섬에 있는 돌이나 나무를 건드리지 않았다. 굴을 많이 채취하였다.
- 돈여 : 녹도 북동쪽 낭낙뿌리 동쪽의 바위너덜. 이곳 전설에 의하면 대화사도는

활이고 소화사도는 살촉인데 사슴을 겨누고 있었으나 석도가 막고있어 쏘지 못하고 호도를 겨누었는데 도야지인 돈여가 맞았다 한다. 그리하여 소화사도 바로 앞에 있는 노루너에서 노루가 놀라 경충 뛰어나와 노루너라고 한다.(김성룡)

- 동무옆댕이 : 녹도 마을의 동쪽 해안. 해막태의 남쪽이다.
- 동벌샘 : 녹도의 남서쪽에 있는 샘. 굴번테기와 마당너머 사이에 있다.
- 마당너머 : 녹도의 서남쪽 해안. 마당너머 샘이 있다.
- 마당너머샘 : 녹도의 서남쪽 해안 마당너머에 있는 샘.
- 망재 : 녹도의 북쪽 산, 당산의 북쪽이다.
- 모도(毛島) : 모섬의 한자식 표기.
- 모도 : 녹도 서쪽에 있는 섬이다. 주민들은 보통 '모섬'이라고 부른다. 이미기굴이라고 불리는 해식굴이 있다. 예부터 주변에 주목망을 매지 않았다. 약초로 쓰이는 잔대가 많다. 녹도 본섬과 불과 200여 m 떨어져 있다.
- 목너머 : 녹도의 북쪽 해안. 갑진배의 서쪽이다.
- 백사장 : 녹도 마을 북동쪽 해안의 백사장. 동무옆댕이의 남쪽에 있다.
- 봉화대(烽火臺, 봉화대) : 외연도에서 받아 원산도로 전함. 충청수영에서 운영하던 권설봉수이다. <1911, 朝鮮地誌資料>
- 봉화산 : 녹도 마을 뒤에 있는 산으로 과거에 봉화를 올리던 터가 남아있다.
- 불등 : 녹도 서남쪽 해안으로 선창골의 북쪽이다.
- 삼부너모탱이 : 녹도 동남쪽 해안 노랑배너머의 남쪽, 우지바위의 북쪽이다.
- 삼형제바위 : 녹도의 남쪽에 있는 바위. 굴번테기와 우지바위 사이에 있다.
- 석도(石島) : 독섬의 한자 표기.
- 선착장 : 녹도 마을 앞에 있는 배가 정박하는 곳.
- 선창골 : 녹도의 서쪽 해안. 해안이 자갈로 덮여 있다.
- 선창골샘 : 녹도의 서쪽 선창골 남쪽에 있는 샘.
- 쇠목아지 : 녹도의 북쪽 해안으로, 하나실에 있다.
- 시집너 : 녹도의 서남쪽 마당너머의 서남쪽에 있는 간조 때 나타나는 돌무더기.
- 옆샘이 : 녹도 마을 북쪽에 있는 해안. 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우지바위 : 녹도 남쪽 끝에 있는 바위.
- 이미기굴 : 녹도 서쪽 모섬(毛島)에 있는 구멍. 이미기(이무기)가 나왔다고 하며 녹도 본섬의 이미기굴과 통한다는 전설이 있다.
- 이미기굴 : 녹도의 서남쪽 마당너머 앞에 있는 구멍. 모섬(毛島)의 이미기굴과 통한다는

전설이 있다.

- 재빼기 : 녹도 마을 뒷산. 봉화산의 남쪽이다.
- 주벽녀 : 녹도 동쪽에 있는 독섬의 동쪽 끝에 있는 바위 너덜.
- 죽은봉 : 녹도 동쪽에 있는 독섬의 동쪽 봉우리.
- 초상골 : 녹도 마을 남쪽에 있는 지명이며 삼분여와의 중간 위치에 있다. 1902년 당시 조선병사 4명과 왜병(군산에서 온) 11명과의 교전 끝에 일부 사살된 왜병과 죽지 않은 왜병을 함께 한 구덩이에 생매장하였으므로 초상골이라 한다고 전한다.

당시 교전 중에 선창가에서 도망치던 이유신(8살)과 감창억(7살)이 있었는데 감창억은 왜병의 총에 맞아 죽었다 한다. 당시 조선병사가 떠나면서 큰 후환이 있다고 하여 마을 주민들은 모두 피난을 했고 일부 남았었는데, 후일 군산 왜병이 대거 출동하여 당시 전씨인 이장을 칼로 내리쳐 그 자리에서 죽였고, 청년 3사람은 호도로 헤엄쳐 호도 당산에 은신했으나 왜병은 녹도 마을을 불태우고 호도의 당산을 둘러싸고 불을 질렀다고 한다.

청년 박창선 씨가 호도의 김성운 씨 어머니 치마 속에 숨어 살아 생명의 은인이라 하여 박창선 씨의 딸을 김성운 씨에게 시집보냈다고 한다. 지금도 호도나 녹도에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당시의 사건이 녹도의 애사로 전해지고 있다.(김성룡)

- 큰봉 : 녹도 동쪽에 있는 독섬의 서쪽 봉우리.
- 텃샘밭 : 녹도의 서북쪽 트이의 북쪽으로 텃샘이라는 샘이 있다.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 트이 : 녹도 마을의 서북쪽 당재너머에 있는 비교적 평평한 곳으로 과거에 사람이 거주하던 곳이라고 한다.
- 하나실 : 녹도의 북쪽 해안. 자갈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 해막태 : 녹도 북동쪽 해안. 옛날 해막(당제 기간 중 산모가 애기를 낳는 곳)이 있었던 곳이다. 1966년대까지 해막이 있었다고 전한다.



녹도 당집(2002)



녹도포구, 독섬, 소화사도(2008)

2) 호도(狐島, 여슴)

녹도 북쪽에 있는 섬으로 예부터 ‘여슴’으로 불렸으나 한자로 호도(狐島)로 표기되어 요즈음은 호도로 많이 불린다. 백사장이 좋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 녹도보다 인구가 많고, 초등학교도 있다.

- 갑진배 : 호도의 북쪽 해안에 있는 바위. 소골태뿌리의 동쪽에 있다.
- 검은여 : 호도의 남서쪽에 있는 바위 너덜로 녀여의 앞에 있다.
- 검은여굴 : 녹도 호도 길산도로 둘러싸인 좋은 어장이다.
- 고래미작지 : 호도 마을의 남서쪽, 서쪽으로 향한 돌출부에 있는 해안으로 깨끗한 자갈이 깔려 있다.
- 공동묘지 : 호도 마을 남서쪽에 있다.
- 굴다리 : 호도의 남서쪽 녀여의 북쪽에 있는, 바닷물에 의해 침식된 굴이다. 마을에서는 ‘용난구멍’이라고도 부른다.
- 굴배 : 호도의 북쪽 해안에 있는 바위.
- 귀분네마당터 : 호도의 북서쪽 해안.
- 녀여 : 호도의 남서쪽 해안에 있는 바위 너덜.
- 당너머 : 호도의 북쪽 해안, 마을에서 보아 당산의 너머이다.
- 당산 : 호도 마을 서북쪽에 있는 산으로 큰당과 작은당이 있었다. 큰당은 당산의 정상쪽에 작은당은 북서쪽 해안에 있었다. 큰당은 1980년대 초까지 당제를 지냈는데, 현재는 무너져 없어졌다. 정월 그믐날 저녁에 올라가 다음날 새벽에 지냈다.
- 덜깃티 : 호도 마을의 서남쪽 고래미작지 동쪽에 있는 해안이다.
- 뒷개 : 호도의 서쪽 해안에서 마을의 서쪽 산너머를 말한다.
- 말두먹끝 : 호도의 최북단에서 북쪽으로 향한 산줄기의 끝.
- 멩덕여 : 호도 북서쪽 멩택이에 딸린 바위 너덜로 간조 때 나타난다.
- 멩택이 : 호도 서북쪽에 있는 섬.
- 멩덕도(明德島) : 멩택이의 한자 표기.
- 멩덕도 : 호도 북쪽에 있는 섬이다. 주민들은 ‘분점’이라고 부른다. 예부터 녹도 사람들이 연료를 채취하였다. 호도와 인접되어 있지만, 호도는 연료가 충분하였고 녹도는 인구가 많고 산이 없어 각 섬에 나가 연료를 채취하였다.
- 모래등 : 호도 장벌 위쪽에 있는 사구로, 규사로 된 모래 언덕이다. 한국판유리 공장에서 가져가 상당 부분 없어졌다.

- 모래톱 : 호도의 서쪽 해안, 물내려오는고랑과 심대코쟁이 사이에 있다.
- 물내려오는고랑 : 호도 서쪽 해안의 오목한 곳이다. 바위틈에서 좋은 생수가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 부녀 : 흑서의 다른 이름. 고래미작지 앞에 있다.
- 분점 : 명덕도
- 불등이 : 호도 마을 남동쪽에 있는 모래 벌판이다.
- 선창 : 호도의 마을 북쪽에 있는 배를 대는 해안.
- 섬배 : 호도의 북서쪽 끝에 있는 바위.
- 섬배산 : 호도의 북동쪽에 있는 산.
- 소골태뿌리 : 호도의 동북쪽에서 북쪽으로 내민 산줄기의 끝.
- 심대코쟁이 : 호도 서쪽 해안의 모래톱 북쪽에 있다.
- 작은덜곶 : 호도 중간쯤에 있는 산봉우리.
- 작은샘 : 호도 마을 서쪽에 있는 샘으로 물이 나빠 먹지는 않고 허드렛물로 사용하였다.
- 잔재기 : 호도의 남쪽 해안이다. 잔 자갈로 깔려있어 잔재기라고 불린다.
- 장벌 : 호도 서쪽 해안의 모래밭. 규사로 이루어진 깨끗한 모래로 되어 있어 해수욕장으로 개발되었다. 인천 한국판유리에서 유리 원료로 가져가기도 하였다.
- 쟁여불뚱 : 호도 남동쪽에 뽀쪽하게 내민 곳.
- 창대 : 호도 남서쪽 해안. 굴다리와 고래미작지 사이에 있다.
- 촛등이 : 호도의 최 남단에서 남쪽으로 뻗은 뽀쪽한 곳이다. 녹도를 향하고 있다.
- 큰덜곶 : 호도 남쪽에 있는 높은 산봉우리.
- 큰산재 : 호도 마을 남서쪽의 낮은 부분.
- 큰샘 : 호도 마을 남쪽에 있는 샘으로 물이 좋아 식수로 사용하였다. 지하수를 개발하기 전인 1970년대 초까지는 마을의 유일한 샘이었다.
- 해막(解幕) : 큰덜곶과 작은덜곶 사이에 있었다. 옛날 당제를 지내는 기간 동안에 출산 예정인 산모가 있으면 부정한 것이 당산에서 보이지 않도록 이곳에 옮겨 출산하게 하던 곳이다. 해방무렵까지 해막이 이용되었다.
- 호도리(狐島里, 여심) : 호도. <1911, 朝鮮地誌資料>
- 흑서 :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호도 남서쪽 끝에 있는 바위섬이다. 주민들은 ‘부녀’라고 부르는데, 해도에는 흑서로 표기되어 있다. 나무는 없고 풀만 나 있다. 사리 때는 호도 고래미작지와 연결되어 건너갈 수 있다. 간석지가 넓게 나타나 해산물이 풍부하다. 특히 굴과 청각, 툇 등이 많다.



호도 피서객(2007)



호도 해안

3) 길산도(吉山島, 질미)

주민들은 질미라고 부르고, 길산도(吉山島)로 표기한다. 녹도 서쪽에 있는 작은 섬 4개를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다. 대길산도(큰질미), 속길산도(속질미), 중길산도(가운데질미), 소길산도(끝질미)로 부른다. 11가구까지 거주하였으나 1975년 독가촌(獨家村) 철수로 모두 철수되었다. 옛날 이 섬에는 방파제 시설이 없어 작은 배만 소유하고 풍량이 불면 배를 육지에 올려놓았다고 한다.



길산도(2007)

- 가운데질미 : 중길산도
- 길산서 : 대길산도와 소길산도 사이에 있는 바위이다. 만조에도 잠기지 않는다. 주민들은 ‘넙덕여’라고 부른다.
- 끝질미 : 소길산도
- 넙덕여 : 대길산도와 작은질미 사이의 바위 너덜.
- 달밭골 : 큰질미(대길산도)의 남쪽 골짜기.
- 대길산도 : 외연도와 녹도 사이에 동서로 이어지는 4개의 섬 가운데 가장 서쪽에 있는 큰 섬이다. 나무가 많고, 물이 있으며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30마지기 정도 있어 예부터 사람이 거주하였다. 많이 살 때는 허씨, 문씨, 김씨, 한씨, 이씨 등 11가구까지 거주하다가 1975년 정부 정책으로 모두 철수하였다.

주민들은 자손 대대로 거주하지 않았고 형편이 좋아지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살곤 하였다. 방파제가 없어 작은 배를 소유하였으며, 바람이 불면 물으로

끌어올려 피해를 면하였다. 녹도와 왕래하며 생활하였다. 당산이 있어 당제를 지냈다. 김, 가시리 등을 채취하여 팔고, 고동젓(소라젓) 등을 담아 팔아서 생활하였다. 1970년대에 염소를 방목하였는데, 현재는 환경보전 측면에서 없애려고 하나 모두 잡을 수 없다.

- 목질미 : 속질미(북질미)의 다른 이름.
- 북질미 : 속질미(목질미)의 다른 이름
- 샘너머 : 대길산도의 남쪽 해안으로 달밭골의 동쪽이다.
- 소길산도 : 길산도의 4개 섬 중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다. 주민들은 ‘끝질미’라고 부르고 해도에는 소길산도라고 표기하였다. 주민의 거주는 없었고, 나무가 있어 녹도 주민들이 연료로 채취하였다. 해초가 많다.
- 속길산도 : 길산도의 4개 섬 중 대길산도와 중길산도 사이에 있는 섬이다. 주민들은 ‘북질미’ ‘속질미’ ‘불은질미’ 등으로 부르는데 간조 때에는 대길산도와 연결된다.
- 작은고랑 : 대길산도의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작은산 : 가운데질미 서쪽에 있는 산.
- 중길산도 : 길산도(질미)의 4개 섬 중 가운데 섬이다. 주민들은 ‘가운데질미’라고 부르는데 해도에는 중길산도로 표기되어 있다. 주민이 거주하지 않아 과거에는 녹도 주민들이 연료를 채취하였다. 해방무렵 덕적도 주민들이 탄 중선배가 좌초 침몰하여 9명 선원 중 8명이 죽고 1명만 생존하여 귀환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때 시체를 수습한 주민이 녹도에 거주하고 있다. 중길산도의 동쪽에 있는 산을 ‘큰산’, 서쪽에 있는 산을 ‘작은산’이라고 부른다.
- 집넘어 : 대길산도 동쪽 마을의 동쪽 해안.
- 큰고랑 : 대길산도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큰산 : 가운데질미 동쪽에 있는 산.
- 큰질미 : 대길산도의 순수 우리말 이름.

4) 대화사도(大華沙島, 큰화사리)

오천면 녹도리 녹도(여승) 남쪽에 있는 화사도(화사리) 중 서쪽에 있는 섬이다. 섬 정상에는 삼각점(해발 99.9m)이 있다. 소화사도와 사이에 많은 주목망을 매어 조기를 잡았다. 이곳은 물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주목망에 고기가 많이 들어 녹도 최대의 어장을 이루었다. 과거에는 풍어를 기원하여 섬 꼭대기에 당집을 짓고 당제를 지냈다. 녹도와 같이 전횡 장군을 모셨다.

- 구멍배 : 큰화사리 남서쪽에 있는 구멍 뚫린 바위. 중국에서 끌어가려고 밧줄을 걸었다는 구멍이 있다.
- 굴르배 : 대화사도 남쪽 끝에 있는 바위.
- 녀여 : 대화사도 서북쪽 끝에 있는 바위 너덜.
- 느다시 : 대화사도 서쪽 해안, 바위 너덜로 되어있다.
- 디리녀 : 대화사도 남서쪽에 있는 바위 너덜.
- 목성끝 : 대화사도 서북쪽 끝.
- 목토지 : 대화사도 서북쪽의 잘록한 부분.
- 문배 : 대화사도 남쪽 굴르배와 구멍배 사이에 있는 자갈밭.
- 새시 : 대화사도 동쪽 해안.
- 작은고랑 : 대화사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큰고랑의 동쪽에 있다.
- 큰고랑 : 대화사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작은고랑의 서쪽에 있다.
- 큰화사리 : 대화사도

5) 소화사도(小華沙島, 작은화사리)

오천면 녹도 남쪽에 있는 섬인 화사도 중 동쪽에 있는 섬이다. 주민들은 보통 ‘작은 화사리’라고 부른다. 나무가 많아 녹도 주민들이 연료를 채취하던 곳이다. 둥글레 등 산나물이 많다. 대화사도 사이에 25톨 정도의 주목망을 매어 고기를 잡았다. 옛날에는 조기가 많이 잡혔다. 과거에 토끼와 염소를 방목하였다. 토끼는 수천 마리까지 번식하였으나 자연히 줄어들고, 아직도 염소가 남아 있다. 가마우지의 번식지이다.



소화사도 가마우지 서식지(2008)



소화사도 해식굴(2008)

- 녀덕미 : 슬픈여와 소화사도 사이에 있는 바위 너덜.
- 노루녀 : 소화사도 북쪽에 있는 바위 너덜.

- 새밭너머 : 소화사도 동쪽 해안.
- 새시 : 소화사도 북쪽 해안.
- 앞작지 : 소화사도 서쪽 해안.
- 우지배 : 소화사도 남쪽에 있는 바위.
- 작은화사리 : 소화사도

4. 삽시도리(插矢島里)

본래 오천군 하서면(河西面) 지역으로 삽시도(插矢島)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삽시도와 고대도(古代島里), 외감도면(外歛島面) 외장고도리(外長古島里), 불모도리(拂母島里), 오도(烏島), 납대지도(納大只島)를 병합해서 삽시도리라 해서 오천면에 편입하였다.

- 고대도 : 고덤의 한자 표기. 삽시도 북쪽 안면도와의 사이에 있는 섬(별도 기재).
- 길웅암(吉鷹岩) : 용매기의 한자 표기.
- 납대지도(納大只島) : 납작도
- 납작도 : 오천면 삽시도리 삽시도 동쪽, 원산도 남쪽에 있는 섬이다. 주민들은 보통 '납대기'라고 부른다. 납대지도(納大只島)라고도 한다. 식수가 있어 1960년대까지 1가구가 밭농사와 어업을 하며 살았다고 한다. 숲은 소나무이고 예전에 가끔 토끼를 방목했으나 현재는 없다.
- 납작여 : 삽시도 동쪽 납작도 북쪽에 간조 때 나타나는 바위 너덜.
- 멩택이 : 오도의 순수 우리말 이름
- 불모도 : 불명의 한자 표기. 삽시도 남쪽에 있는 섬.(별도 기재)
- 삽시도 : 삽시도리의 중심 섬. 삽지의 한자 표기.(별도 기재)
- 여과장(오탁서) : 삽시도의 서쪽 호도의 북쪽, 멩택이(오도) 서쪽에 있는 작은 바위 섬이다. 주민들은 여과장이라고 부르고 해도에는 오탁서로 표기되어 있다. 1915년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그린 지형도에는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 오도(烏島) : 호도 북쪽, 삽시도리 삽시도 서쪽에 있는 섬이다. 섬이 작고 원추형으로 생겼다. 주민들은 '멩택이'라고 부른다. 모양이 옛 벌통 위에 엮은 '멩덕1) 모양으로

1) 벗집으로 만든 원추형 기구. 벌이 분봉해서 나오면 여기에 꿀을 발라 붙게하여 새로운 벌통 위에 엮어 놓아 새로운 벌통이 되게 한다.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잡목 숲이 있어 예부터 녹도 주민들이 연료를 채취하였다. 녹도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였으나 연료가 부족하여 주변 여러 섬에서 연료를 채취하였다. 경사가 급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는 없고, 염소 몇 마리를 방목하였으나 번식하지 못하여 현재는 없다고 한다. 해삼, 전복을 양식한다.

- 오탁서 : 여과장의 한자식 이름.
- 외고도(외점도) : 삼시도리 불모도(불명)와 오천면 녹도리 기름암(추녀) 사이에 있는 섬이다. 주민들은 ‘용매기’라고 부르고, 해도에는 외점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예전에 염소를 방목하기는 하였으나, 주민은 거주하지 않고, 해삼, 전복, 굴 등을 양식한다.
- 외고도(外占島) : 추녀의 한자 표기.
- 용매기(吉鷹岩) : 삼시도와 녹도 사이에 있는 섬. 질맘(錐島)과 추녀(外占島) 사이에 있다. 1915년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형도에 길웅암(吉鷹岩)으로 표기됨.
- 장고도(長古島) : 삼시도 북쪽에 있는 섬, 장곰의 한자 표기.(별도 기재)
- 종달여 : 삼시도와 용섬(龍島) 사이에 있는 바위 너덜.
- 추녀(外占島) : 용매기와 삽지(插矢島) 사이에 있는 섬이다. 1915년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형도에 外占島라 표기되어 있다.
- 치도 : 오천면 삼시도리 삼시도 남쪽에 있는 불모도(불명) 서북쪽에 붙어 있는 작은 섬이다. 주민들은 ‘토끼섬’이라고 부르고 해도에는 ‘마차도’로 표기되어 있다. 삼시도리 산 50번지이다.

1) 고대도(古代島, 고덤)

안면도와 삼시도 사이에 있는 섬으로 예부터 많은 주민이 거주하였다. 주민은 고덤이라고 부르나 예부터 고대도(古代島)로 표기하여 요즈음은 고대도로 부른다. 고대도에는 옛날 기와집이 많았는데 마과람이 불 때 화재가 나 전소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도 기와장이 많이 출토된다고 한다. 일제시대 齋藤家の 伏見稻荷大明神 신사가 있었고, 신사에 있던 비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다.

- 간단여 : 고덤(古代島)의 북쪽 끝에 있는 바위 너덜. 꽃동산의 북쪽에 있다.
- 감나무골 : 고대도 봉화재에서 북동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
- 고대도(古代島) : 고덤의 한자식 표기.
- 공동묘지 : 고대도 산끝재의 남쪽 사면.
- 꽃동산 : 고대도 마을의 북쪽에 있는 낮은 산.

- 당너머 : 고대도 당산의 서쪽 해안.
- 당산 : 고대도 윗말의 서쪽에 있는 낮은 산(43.8m). 정월 초사흘에 당제를 지낸다.
- 뒷산 : 고대도 북쪽 끝에 있는 산. 당산의 북쪽이다.
- 뒷산너머 : 고대도의 북쪽, 뒷산의 서쪽 해안이다.
- 뒷장별 : 고대도의 해안에 인접한 마을의 북쪽 부분을 말함.
- 모란여 : 고대도의 남쪽 해안에 있는 바위 너덜.
- 봉화재 : 고대도 남쪽의 산봉우리로 옛날 봉화를 올렸다고 한다.
- 비석계 : 고대도 윗말의 북쪽, 당산의 서쪽에 비석이 늘어서 있는 곳.
- 산끝재 : 고대도의 중앙부에 있는 산. 정상에는 삼각점이 있다.
- 석바래 : 고대도 남쪽 봉화재의 서쪽 해안. 바위 너덜로 되어있다.
- 선바위 : 고대도 최 남단에 있는 바위.
- 술몽대이 : 고대도 남쪽 봉화재의 동쪽 해안.
- 아르변달 : 고대도의 남쪽에 있는 완경사지. 선바위와 모란여 사이에 있다. 옛날 해산막이 있었다고 한다.
- 양타리 : 고대도의 동쪽 해안. 초상골과 감나무골 사이에 있다.
- 앞장별 : 고대도의 해안에 인접한 마을의 가운데 부분을 말함.
- 어르금 : 고대도 마을의 남쪽 마을. 산끝재의 동쪽 마을.
- 어르금너머 : 고대도의 봉화재와 산끝재 사이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
- 윗말 : 고대도의 서쪽 부분, 산끝재와 당산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해 있다.
- 조근여 : 고대도 북쪽 끝에 있는 바위 너덜. 뒷산의 북쪽 끝이다.
- 초상골 : 고대도 봉화재와 산끝재 사이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옛날 해산막이 있었다.



고대도 당집(1997)



고대도 신사(神社)의 비(1997)

2) 불모도(拂母島, 불뎀)

오천면 삼시도리 삼시도 남쪽에 있는 섬이다. 주민들은 보통 ‘불뎀’이라고 부른다. 1970년대 까지 섬의 북쪽 중앙에 7가구가 거주하였으나 1975년쯤 독가촌 철수 정책으로 모두 이주하였다가, 2006년 펜션형의 농가주택 1가구가 들어서 있다. 현재 주택이 있는 곳이 옛 마을이다. 가축을 방목하지는 않았다.



불모도(2008)

- 불모도동(拂母島洞, 불모도) : 불모도. <1911, 朝鮮地誌資料>
- 건성배 : 불모도 하나시 장별 바로 옆에 있는 바위.
- 구멍배 : 불모도의 서북쪽에 있는 구멍 뚫린 바위.
- 까시굴 : 불모도의 서남쪽 산 중턱으로 과거 굴을 까던 곳이다.
- 도감여 : 불모도의 동남쪽 끝.
- 동끝 : 불모도의 동북쪽 끝.
- 판마치섬 : 불모도 북쪽 마치섬의 서북쪽에 있는 마치섬에 딸린 작은 섬.
- 마시 : 불모도 서북쪽 산으로 묘지가 있는 곳이다.
- 마치섬 : 불모도 북쪽에 있는 바위 섬.
- 밧섬창 : 불모도 마을 앞 배대는 곳.
- 불모도(拂母島) : 불뎀의 한자 표기.
- 안섬창(앞섬창) : 불모도 마을 앞 배대는 곳.
- 토끼섬 : 불모도의 서북쪽에 있는 작은 섬.
- 하나시 : 불모도와 마치섬, 토끼섬으로 둘러싸인 해안.

3) 삼시도(插矢島, 삼지)

원산도 서남쪽에 있는 큰 섬. 원래 ‘삼지’라고 부르고 ‘삼시도’로 표기하였다. 현재는 삼시도로 부른다. 산이 높지 않고 농경지가 많아 주민이 많은 섬이다.

- 갑골 : 삼시도 아랫말과 공동묘지 사이의 골짜기.
- 갯알할매바위 : 삼시도 동쪽 해안에 있는 바위. 차돌백이 산의 서쪽 끝에 있다.

- 거멀너머장벌 : 삼시도의 북쪽 당산쪽뿌리와 보루망끝 사이에 발달한 모래 해안.
- 공동묘지 : 삼시도 아랫말의 남쪽 낡은당산의 서쪽 기슭.
- 공동묘지재 : 삼시도 아랫말에서 공동묘지로 오르는 재.
- 낡은당산 : 삼시도의 중앙 공동묘지 서쪽에 있는 산. 옛날 당산으로 보임.
- 당산 : 삼시도 윗말 서쪽에 있는 낮은 산. 과거에는 당집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정월 보름에 소를 잡아 제를 지냈다고 한다. 1960년대까지 제를 지냈으나 현재는 지내지 않는다.
- 당산쪽뿌리 : 삼시도 서북쪽에 있는 당산의 끝.
- 덕마술등 : 삼시도의 동쪽, 차돌백이산의 동북쪽 해안에 있는 마을이다.
- 덜머리 : 삼시도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벌판과 덜머리재 사이에 있다.
- 덜머리재 : 삼시도 아랫말 장골에서 덜머리로 넘어가는 재.
- 도둑놈굴 : 삼시도 복생이끝과 복생이끝논 사이에 있는 모래 언덕의 골짜기로, 옛날에 도둑이 들끓었다는 전설이 있다.
- 독사끝 : 삼시도의 북쪽 술등 마을의 북쪽에 동쪽으로 내민 산의 끝.
- 돌리망 : 낡은당산의 동쪽 사면.
- 등잔거리 : 삼시도 봉구덩이산의 북쪽 끝.
- 판독무니 : 삼시도 남쪽 밤섬의 서남쪽에 있는 바위 너덜.
- 뚝말 : 삼시도의 북쪽 마을. 아랫말과 술등 마을 사이에 있다.
- 맨삼지 : 삼시도 서쪽 해안. 맨삼지 섬의 옆이라 부르는 이름이다.
- 맨삼지 : 삼시도 서쪽에 붙은 작은 섬.
- 물망댕이장벌 : 삼시도 서쪽 해안의 남쪽에 있는 작은 모래 해안이다. 바닷속 돌틈에서 민물이 나오는데 물맛도 좋다. 예부터 백중이나 사월 초파일에 마을의 머슴들이 놀던 장소이다.
- 발전소 : 삼시도 술등 마을과 웃말 사이에 있다.
- 밤섬 : 삼시도 남쪽 밤섬의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밤섬 : 삼시도의 최남단에 있는 섬으로 모래 언덕으로 연결되었다.
- 밤섬벌판 : 삼시도 밤섬의 서북쪽에 있는 모래벌판. 수루미벌판의 서쪽이다. 소나무가 들어서 있다.
- 밤섬장벌 : 삼시도 남동쪽에 있는 모래 해안. 밤섬의 북동쪽 해안.
- 방과재 : 삼시도 벌판말 앞에 있는 방과재.
- 벌판말 : 삼시도 남쪽 밤섬 마을과 차돌백이산 사이의 벌판에 있는 마을이다.

- 북쟁이끝 : 삼시도 서쪽 끝에 있는 산의 서쪽 끝. 애석(화강석) 광산이 있었다.
- 북쟁이끝논 : 북쟁이끝과 벌판말 사이에 있는 들.
- 부루망끝 : 삼시도의 북서쪽 끝.
- 봉구덩이꼭대기 : 삼시도 봉구덩이산의 정상. 삼각점이 있다. 높이 112.7m이다.
- 봉구덩이산 : 삼시도의 서쪽에 있는 높은 산.
- 비암목 : 삼시도 남서쪽에 뱀의 머리처럼 내민 산줄기. 뱀의 목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삼시도(插矢島) : 삼지의 한자식 표기. 일제시대 이전부터의 한자 표기이다.
- 섬창 : 삼시도의 북쪽 술등 마을 앞에 쌓은 방과제.
- 수루미논 : 삼시도 수루미 벌판과 수루미재 사이의 골짜기에 있는 논.
- 수루미벌판 : 삼시도 남쪽 수루미장벌 북쪽에 있는 모래 벌판. 소나무가 들어서 있다. 옛날 홍경래가 말달리던 곳이라는 전설이 있다.
- 수루미섬창 : 삼시도의 남서쪽에 있는 산줄기의 동쪽 해안. 해안이 바위로 되어 있다. 옛날 방과제가 없던 시절에 배를 대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수루미섬창끝 : 삼시도의 남서쪽 끝. 주변이 바위 너덜로 되어 있다.
- 수루미장벌 : 삼시도 남쪽에 있는 삼시도에서 가장 큰 모래 해안이다. 밤섬과 수루미섬창 사이에 있다.
- 수루미재 : 삼시도 아랫말에서 남쪽의 수루미로 넘어가는 고개.
- 술등 : 삼시도의 북동쪽 해안에 있는 큰 마을. 사구의 순수 우리말인 ‘술등’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 아랫말 : 삼시도의 북서쪽에 있는 마을. 옷말의 남쪽, 뚝말의 서쪽에 있다.
- 안빨 : 삼시도의 서쪽에 있는 봉구덩이산의 동쪽 사면.
- 여부녀 : 삼시도의 서북쪽, 당산쪽뿌리 앞에 있는 바위 너덜.
- 외당너머큰산 : 삼시도 봉구덩이산의 북쪽 부분에 있는 높은 봉우리. 높이 96.0m.
- 요강수 : 삼시도의 북쪽 해안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
- 요강수논 : 삼시도 술등 마을과 요강수산 사이에 있는 논.
- 요강수산 : 삼시도 북쪽 끝에 있는 산.
- 요강여 : 삼시도의 북쪽 끝 앞에 있는 바위 너덜.
- 우지바위 : 삼시도 서쪽 해안의 바위. 멘삼지와 물망댕이장벌 사이에 있다.
- 옷말 : 삼시도의 북서쪽에 있는 마을. 아랫말의 북쪽, 술등 마을의 서쪽에 있다.
- 용굴 : 삼시도 아랫말과 수루미재 사이의 골짜기.

- 장골 : 삼시도의 중앙부 차돌백이산과 날근당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마을.
- 장골 : 차돌백이산과 날근당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장골재 : 삼시도 벌판말에서 장골로 통하는 재. 차돌백이산의 서쪽에 있다.
- 장세미골 : 삼시도 북쪽 끝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차돌백이산 : 삼시도의 중앙부에 있는 산. 차돌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청두명 : 삼시도의 서북쪽 해안. 멘삽지와 당너머장벌 사이에 있다.
- 청두명장벌 : 삼시도의 북서쪽 해안. 청두명의 북쪽에 있는 모래밭이다.



발전소(1996)



오천초 삼시분교장(1996)

4) 장고도 (長古島, 장곰)

고대도 서북쪽에 있는 섬이다. 장곰이라고 불리고 장고도라고 표기하였다. 태안군 안면읍 누동리(樓洞里)의 장곰과 비교하여 이곳을 ‘뱃장곰’ 태안의 장곰을 ‘안장곰’이라고 하였다. 장고를 닮아 장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섬 주변에 바위 너덜이 많아 양식업의 최적지를 이룬다. 예부터 많은 주민이 거주하였으며 등바루 놀이, 등불써기 놀이 등 전통 민속 놀이가 최근까지 이어져온 섬이다.

- 가마녀 : 장고도의 동남쪽에 있는 바위 너덜. 부녀의 동쪽에 있다.
- 가운데말 : 장고도 마을의 가운데 부분.
- 가운데방죽 : 장고도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평지. 아랫방죽의 동쪽이다. 모두 논으로 개간되었다.
- 갯너머 : 장고도 당산과 중미산 사이의 서쪽 해변. 해수욕으로 알맞은 곳이다.
- 공동묘지 : 장고도의 최 북단에 있는 산에 있다. 윗방죽의 북쪽이다.
- 느다시 : 장고도의 서쪽 판투녀와 투녀 사이에 있는 바위 너덜.
- 달바위 : 장고도 남쪽의 동쪽 해안에 있는 바위. 간조시에 배를 대기도 한다.

- 당너머 : 장고도 당산 서쪽의 바닷가를 말함. 갯너머와 같은 지역이다.
- 당산 : 장고도 마을의 서북쪽에 있는 낮은 산. 꼭대기에는 당집이 있고 1980년대까지 정월 초이틀~초사흘에 당제를 지냈다. 제물은 쇠고기를 사용한다. 이곳에서 등불써기놀이를 하였다.
- 돛단여 : 장고도 남쪽에 있는 간조 때 나타나는 바위 너덜. 판서구지의 동북쪽이다.
- 동무대 : 장고도 서쪽, 마을 북쪽에 있는 낮은 산이다. 어린이들이 놀던 산이다.
- 판서구지 : 장고도 남쪽 삼지(삼시도)와의 사이에 있는 작은 바위 섬.
- 판투너 : 장고도 서쪽에 있는 간조 때 나타나는 바위 너덜. 비파녀의 밖에 있다.
- 마녀 : 장고도 서쪽에 있는 바위 섬. 진여와 중미산 사이에 있다.
- 망둥여 : 부녀와 장고도 사이에 있는 작은 바위 너덜. 작은버녀의 동쪽에 있다.
- 명장섬 : 장고도 북쪽에 있는 4개의 바위 섬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
- 명장섬너머 : 장고도 북쪽에 있는 해안이다. 모래가 좋고 넓어 등바루놀이를 하는 곳이다. 돌방이 만들어져 있다.
- 밤녀 : 장고도 방과재 남쪽에 있는 바위 너덜.
- 버섯산 : 장고도의 남쪽에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산. 초등학교의 뒷산이다.
- 벗근너 : 장고도 당산의 남쪽 버섯산의 북쪽 경사지를 말함.
- 부녀 : 장고도의 남쪽에 있는 큰 바위 섬. 만조가 되어도 물에 잠기지 않는다. 여(바위너덜) 중에서 가장 큰 아버지 여이기 때문에 부녀(父)라고 부른다고 한다.
- 비파녀 : 장고도 서쪽에 있는 간조 때 나타나는 바위 너덜. 비파녀마당과 판투너 사이에 있다. 비파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비파녀마당 : 장고도의 남서쪽 끝을 말함. 버섯산의 남쪽 기슭이다.
- 사냥금 : 장고도 남쪽 끝.
- 사랑여 : 장고도의 동북쪽 안면도와의 사이에 있는 바위 너덜.
- 썸너머 : 장고도의 서쪽 해안으로 당너머의 남쪽이다. 큰썸너머라는 뜻이다.
- 생여집 : 장고도 남쪽 용골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에 있다.
- 서구지 : 장고도의 남서쪽에 있는 작은 만(灣). 사냥금과 비파녀마당 사이에 있다.
- 서구지골 : 장고도의 초등학교 앞 골짜기. 예부터 논으로 개간되었다.
- 소실녀 : 장고도 남쪽의 동쪽 해안에 있는 간조 때 나타나는 바위 너덜. 달바위와 밤여 사이에 있다.
- 수무치 : 장고도와 명장섬 사이에 있는 물골.
- 술등 : 장고도의 북쪽 해안에 있는 사구. 보령지방에서는 해안 사구를 술등이라고

부른다. 술은 바다의 가장자리라는 의미이고, 등은 언덕을 의미한다.

- 송동여 : 장고도 남쪽에 있는 간조 때 나타나는 바위 너덜. 판서구지의 동쪽.
- 아랫말 : 장고도 마을의 가장 남쪽 부분.
- 아래방죽 : 장고도의 중앙부에 있는 장고도에서 가장 낮은 곳. 과거에는 바닷물이 들락거렸고, 지금은 바닷물은 들어오지 않지만 염기가 많아 농사짓기 어렵다.
- 어릿것너머 : 장고도 동북쪽의 북쪽 끝. 공동묘지의 북쪽 해안이다.
- 업진바위 : 장고도의 서쪽 느다시와 비파너 사이에 있는 바위.
- 염전 : 장고도 마을 서쪽에 있는 간척지이다. 요즈음은 소금을 생산하지 않는다.
- 용난바위 : 장고도 명장섬의 가장 남쪽에 붙은 바위. 구멍이 뚫려있고 이곳에서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다.
- 윗말 : 장고도 마을의 북쪽 부분.
- 윗방죽 : 장고도의 북동쪽, 산으로 둘러싸인 낮은 지역. 북서쪽으로 사구가 가로막아 육지가 된 곳이다. 모두 논으로 개간되었다.
- 용골 : 장고도 남쪽에 있는 골짜기. 달바위와 정골 사이에 있다.
- 작은대머리 : 장고도의 동북쪽, 남쪽 해안에 바다쪽으로 내민 곳. 이곳에는 옛날에 解幕(産幕)이 1채 있었다. 1975년쯤 독가촌 철수 정책으로 장고도 남쪽의 서구지골로 옮겼다.
- 작은버녀 : 장고도 부녀와 장곰 본섬 사이에 있는 작은 바위 너덜.
- 장고도(長古島) : 장곰의 한자식 표기. 일제시대 이전부터 표기한 이름이다.
- 장고도리(長古島里, 장귀염) : 장고도. <1911, 朝鮮地誌資料>
- 장벌 : 장고도 마을의 북동쪽으로 펼쳐진 긴 모래 밭.
- 저수지 : 장고도 남쪽 염전 입구에 있는 저수지. 바닷물을 가두었다가 염전에 보내는 저수지이다.
- 정골 : 장고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사냥금과 용골 사이에 있다.
- 종두레 : 장고도의 동북쪽 끝에 있는 바위섬. 종두레목으로 육지와 연결된다. 홍해물 서쪽에 있다.
- 종두레목 : 장고도 본섬과 종두레를 연결하는 연결부.
- 중미산 : 장고도 마을의 북쪽, 아래방죽의 서북쪽에 있는 산이다.
- 진여 : 장고도의 서쪽에 있는 간조 때 나타나는 바위 섬. 중미산의 서쪽에 있다.
- 청달산 : 장고도의 동북쪽에 있는 산. 윗방죽과 큰대머리 사이에 있다.
- 청부녀 : 장고도의 동남쪽에 있는 바위 너덜. 부녀의 동쪽에 있다.

- 큰대머리 : 장고도의 북동쪽 끝. 간조 때에 배를 대는 곳이기도 하며 과거 멸치 주목을 뿔 때 멸치를 가공하던 시설이 있었다. 주민은 거주하지 않는다.
- 큰샘 : 장고도 당산 서남쪽에 있는 장고도 유일의 샘이었다. 당샘이라고도 했으며 당제를 지내기 전 날 샘을 깨끗하게 청소하였다.
- 큰양산 : 장고도의 동북쪽, 남쪽 해안에 있는 산. 윗방죽의 남쪽에 있는 산이다.
- 터진목 : 장고도 가운데 방죽의 출구이다. 명장섬 너머 백사장의 중앙부에 있다.
- 퇴갯고랑 : 장고도의 동북쪽 바다가 윗방죽으로 통하는 갯고랑.
- 투너 : 장고도의 서쪽 해안에 있는 바위 너덜. 당산의 서쪽에 있다.
- 해막 : 장고도 남쪽 서구지골에 있다. 초등학교 서남쪽에 있으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건물은 남아있다.
- 흥해물 : 장고도의 동북쪽에 있는 작은 만(灣), 큰대머리와 동두레 사이에 있다.



등바루놀이 돌방(1993)



장도도 염전(1993)

5. 소성리(蘇城里)

본래 오천군 천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군서리(郡西里), 군동리(郡東里), 내웅리(內雄里) 일부를 병합하여 충청수영성의 별칭이던 고소성(姑蘇城)의 이름을 따서 소성리(蘇城里)라 하여 보령군 오천면에 편입되었다.

- 가는샘 : 충청수영성 남문밖 길 옆에 있던 샘.
- 강선암(降仙岩, 강선암) : 오천면 소성리 고소성이라 새겨진 바위 북쪽에 또 큰 바위가 있었는데 바닥에 강선암이라고 새겨 놓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다가 매립되어 없어졌다. <1911, 朝鮮地誌資料>
- 건너머 : 동문밖 마을의 동쪽 산사면을 통칭하는 말.

- 고소대(姑蘇臺, 고소터) : 오천면 소성리 고소대와 강선암 위에 평탄지가 있어 이곳에서 옛날 무술을 닦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절벽을 깎아 바다를 매립하여 없어졌다. <1911, 朝鮮地誌資料>
- 고소성(姑蘇城, 고소성) : 오천면 소성리 충청수영성 북변 성밖에 소성강이 있고 강가에 큰 바위가 비석같이 서 있어 바위에 고소성이라고 새겨 놓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1911, 朝鮮地誌資料>. 중국 소주의 명승지를 본 따 붙여진 이름이다. 바다가 매립되어 없어졌다.
- 국사봉 : 소성리 동남쪽 선림사 위에 있는 봉우리.
- 군기고 : 소성리 성안 마을의 옛 군기고가 있었던 자리.
- 군동리(郡東里) : 소성리 ‘동문밖’ <1911, 朝鮮地誌資料>
- 군량고 : 소성리 성안 마을의 서쪽 옛 군량고가 있었던 자리.
- 군서리(郡西里, 군서리) : 소성리 ‘서문밖’ <1911, 朝鮮地誌資料>
- 김신재 : 소성리 동문밖 마을에서 교성리 김신 시영굴로 넘어가는 재.
- 남문밖 : 충청수영 남문 밖 마을. 남문은 1900년대 초까지 있었고 사진도 전한다.
- 남산 : 남산은 오천군 읍의 맞은편(남쪽)에 있는데, 관청 건물이 정남향으로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1911, 朝鮮地誌資料>
- 내웅리(內雄里, 니웅리) : 오천면 소성리 선림사를 포함한 아래쪽 마을. 신촌지역. 안웅개라고 불렀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안웅개’라는 지명은 소멸됨 <1911, 朝鮮地誌資料>
- 농배 : 소성리 영보정 북쪽 바닷가에 있던 바위. 장룽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농암주막(籠岩酒幕, 농바위주막) : 소성리 농바위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당산 : 동문밖 남쪽, 즉 솟재의 동쪽에 있는 산이다. 옛날 소성리 마을에서 동제를 지냈는데 이 마을은 특이하게 충청수영에서 전사한 수군의 신을 모셔 놓았다. 축문에 그들의 이름을 적어 호명하였다고 하는데 1960년대 초 당집이 불탄 뒤 축문도 전해지지 않는다. 이곳에 당제를 지낼 때는 과거 보부상(裨負商) 조직인 원홍주등육군상무사(元洪州等六郡商務社)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하는 등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 당재 : 동문밖 남쪽 산능선을 통칭하는 말.
- 동문밖 : 소성리 옛 충청수영성의 동문 밖 마을. 현재는 간척사업으로 마을 앞이 들로 되어있지만 과거에는 작은 만 안쪽에 있던 마을이다. 보통 동박기라고도 부른다.
- 동문밖간사지 : 동문밖 마을 앞에 있는 간척지. 일제시대에 축조하였다고 한다.
- 동문밖저수지 : 동문밖 마을 앞에 있는 저수지.

- 동문재 : 소성리 성안 마을에서 동문밖 마을로 통하는 재. 옛날 충청수영의 동문자리로 길이 통한다.
- 동밖 : 동문밖을 줄여 부르는 말.
- 탄섬 : 쌍아도 남서쪽에 있는 쌍아도에 딸린 작은 섬.
- 망재산 : 소성리의 동쪽에 있는 산. 비교적 경사가 심하다. 신촌 저수지와 신촌 마을로 둘러싸여 있다.
- 망치(望峙, 망지) : 오천면 소성리 동쪽, 선림사 밑 도로가 통과하는 고개이다. <1911, 朝鮮地誌資料>
- 문안 : 소성리 옛 충청수영의 성 안을 부르는 이름.
- 발리봉(鉢里峯) : 발리봉은 상사봉 동쪽에 선림사가 있고, 절 오른쪽에 뾰족한 봉우리가 하나 있어 발리봉이라 하였다. <1911, 朝鮮地誌資料>
- 방죽개 : 오천 농협 뒤쪽에 있는 낮은 지형. 이곳은 과거 충청수영 시절에도 바닷물이 들락거리던 연못이었다.
- 보건농장 : 소성리 동쪽 끝에 있는 간척지. 신촌 마을의 동북쪽에 있다. 신촌저수지 제방에 소화 10년(1935)에 세운 主事 權重旭의 비가 있다.
- 북문 : 옛 충청수영성의 북문으로 현재의 도로로 훼손되었다.
- 북배 : 소성리 북배산 동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현재 4가구가 거주한다. 신촌저수지의 동쪽 제방으로 통행한다.
- 북배산 : 소성리 서북쪽에 있는 섬이었으나 저수지의 축조로 육지화 되었다. 섬의 동북쪽 해안에는 작은 마을이 있다.
- 사또모신고랑 : 작은산낙골 안쪽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사또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사례골 : 홍축골의 위쪽 골짜기.
- 산제당 : 산제당고랑에 있다. 칠성당의 아래이다. 옛날 이곳에는 절이 있었는데 왜놈이 금부처를 빼앗기 위해 절을 없앴다는 전설이 있다.
- 산제당골 : 동문밖 마을의 동쪽 골짜기. 이곳에는 칠성당과 산제당이 있다.
- 상사봉(相思峯) : 풍수지리상 오천의 중조봉(中祖峯)이고 봉우리의 북쪽 끝에 미인도(빙도)가 있어 그렇게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1911, 朝鮮地誌資料> . 선림사 서남쪽 219.5m의 봉우리이다.

현재도 상사봉이라고 불리고 정상에는 한말에 포대(砲臺)를 설치하기 위해 구덩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매립되고 정절각이라는 정자가 세워져 있다.

- 서문밖 : 소성리 면소재지 마을의 서쪽. 서문의 밖이라는 뜻이다.
- 선림사 : 소성리 동남쪽에 있는 조계종 소속의 절. 신라 진평왕 7년 (590) 담화선사 (曇和禪師)가 건립하였다고 하며 조선시대 철종 11년(1860)에 중수하였다.
- 선림사고랑 : 선림사가 있는 골짜기.
- 선창 : 소성리에서 현재 배를 대는 곳. 이곳은 일제시대에 매립된 곳이다.
- 성들 : 소성리 충청수영성을 부르는 이름. 석성으로 산 능선을 따라 둘러져 있다.
- 소성강(蘇城江, 소성강) : 현재 오천면과 천북면 사이의 바다. 옛 기록에는 이 바다를 강이라고 표기한 것이 많다. <1911, 朝鮮地誌資料>
- 솟재 : 소성리 면소재지 마을에서 영보리 솟재마을로 통하는 고개. 이 고갯길이 충청수영성의 남문으로 통하는 가장 큰 길이었다.
- 신촌 : 소성리의 보건농장 서쪽 망재산 기슭에 기다랗게 늘어선 마을. 간척지의 축조로 농지가 생겨 새로 들어선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주민들은 신기댁이라고도 불렀다.
- 신촌저수지 : 소성리 동쪽 북배산과 망재산 사이에 있는 간척지. 일제시대 보건농장 간척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축조하였다.
원래는 북배산과 망재산 사이에 바다가 통하였으나 북배산의 양쪽 끝에 제방을 축조하여 저수지를 만들었다. 저수지의 중앙부가 수심이 가장 낮다.
- 신기댁이 : 선림사 밑 신촌의 옛 이름.
- 쌍아도 : 쌍오도를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
- 쌍오도(雙鰲島) : 쌍아도의 한자 표기. 마치 한쌍의 자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오천의 오(鰲)도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 아비물린고랑 : 작은산낙골 안쪽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 아버지와 아들이 나무하러 갔다가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전설이 있다.
- 악양루(岳陽樓) : 오천면 소성리 악양루는 본래 영보정의 서쪽, 고소대의 동쪽에 있던 2간밖에 안 되는 정자이다. 정자 이름은 옛 중국 강남의 악양루를 본딴 것 같다. <1911, 朝鮮地誌資料>
- 안산 : 소성리 면소재지 마을 서쪽 산.
- 안제자거리 : 충청수영 서문 안에 있던 옛 시장터. 현 초등학교 교실 자리이다.
- 영보정(永保亭, 영보정) : 영보정은 본래 읍 북변 성 위와 고소대의 동쪽에 있었는데 옛 시판의 필적이 극히 아름다웠다. 지난 무인년(1878)에 부서지고 그 후에 작은 정자를 세웠는데 이것조차 지금은 없다. <1911, 朝鮮地誌資料>
- 옥마천(玉馬川, 말시암골) : 동문밖 간척지로 진입하는 개울 <1911, 朝鮮地誌資料>

- 옥삼봉(玉三峯) : 소성리 남쪽 산봉우리이다. 오천의 주봉(主峰)인데, 3봉우리가 옥같이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이다. <1911, 朝鮮地誌資料>
- 용암진(龍岩津, 용바위나루) : 오천면 소성리와 천북면 하만리 나룻개로 통하던 나루. <1911, 朝鮮地誌資料>
- 우럭바위 : 소성리 영보정 북쪽 바닷가에 있던 바위.
- 우치(牛峙) : 숫재의 한자 표기.
- 원뚝 : 동문밖 간사지의 제방.
- 원전샘 : 소성리 작은산낙골 아래에 있는 샘. 예부터 물이 좋아 약수로 이용하였으며 근래 약수터로 개발하였다.
- 유격장군비 : 정유재란 때 중국 절강성의 수군 3000여 명을 이끌고 온 계금(季金) 장군의 비. 1598년에 안대진이 비문을 지어 세움.
- 유왕도래 : 소성리 면소재지 마을의 서쪽에 내민 산줄기의 끝. 옛날 이곳에서 유왕제(龍王祭)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은골 : 소성리 동문밖 마을의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골이 음침하고 깊다.
- 읍내시(邑內市, 읍니장) : ‘제자거리’라는 지명으로 보아 충청수영 남문 안쪽 산기슭에 시장이 열렸던 것으로 보인다. <1911, 朝鮮地誌資料>
- 읍내주막(邑內酒幕, 읍니주막) : 소성리 읍내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작은산낙골 : 소성리 산제당골과 큰산낙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의 아래에는 원전샘이 있는데 물이 좋아 약수로 이용된다.
- 작은숫재 : 소성리와 숫재마을 사이의 고개.
- 장터 : 오천 시장(5일장)이 서던 곳. 매립한 지역이다.
- 절밭이 : 선림사 서북쪽에 있는 포장도로가 통하는 골짜기. 주유소와 서너 가구의 주민이 거주한다. 계곡을 말하기도 하고, 계곡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하기도 한다.
- 제자거리 : 옛 충청수영성 남문 안쪽 동문이 있는 산기슭에 있던 시장터.
- 칠성당 : 동문밖 마을 산제당골에 있다.
- 큰산낙골 : 소성리 상사봉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작은산낙골과 절밭이 사이에 있다.
- 큰숫재 : 교성리 김신과 숫재 마을 사이의 고개
- 홍살너머 : 홍축골고개의 동쪽 지역. 서문밖에 홍살문이 있고 그 너머라는 뜻이다.
- 홍축골 : 소성리 서쪽 끝에 있는 골짜기. 영보리와 경계한다.
- 홍축골고개 : 소성리 서문밖 마을에서 홍축골로 통하는 고개.



소성리 원경(2007)



충청수영 서문 부근(1910년대)



충청수영 중심지(1910년대)



충청수영 북쪽 해안(2007)

6. 영보리(永保里)

본래 오천군 천동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울변동(栗邊洞), 갈마연동(葛馬淵洞), 우티리(牛峙里), 석소탕동(石所湯洞), 우포리(牛浦里), 진곶지리(津串之里)를 병합하여 영보리라 해서 보령군 오천면에 편입되었다.

- 가마귀재 : 밤까시 마을 서쪽 갈마무시와의 사이에 있는 산. 갈마무시 쪽에서는 큰 산이라고 부른다.
- 가송구지 : 영보리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마을. 해안이 작은 자갈로 이루어져 아름다우며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LNG기지가 들어서 없어질 마을이다.
- 간골 : 영보리 수해 마을의 벗너머골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간사지들 : 영보리 가운데에 있는 간척지. 일제시대에 축조하였다. 主事 權重旭이 막았다고 전한다.
- 갈망시 : 영보리 수해 마을과 밤까시 마을 사이에 있는 골짜기와 그 안에 있는 마을을 통칭한다. 좁은 만 입구에 작은 자갈이 쌓여 입구를 막았고 그 안쪽에 퇴적이 이루어져

경지화되었다. 과거에는 석호(潟湖)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곳이다. 이 마을의 해변은 충칭수영의 사형장이었다. 병인박해 때 천주교도를 사형시킨 곳이기도 하다. 순교 북자비, 순교성인비가 서있고, 최근 천주교회가 들어서 있다.

- 갈마연(渴馬淵) : 갈망시의 한자 표기.
- 갈마연동(渴馬淵洞) : 갈망시(갈매못)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갈마무시 : 갈망시
- 갈매못 : 갈망시를 요즈음 부르는 이름
- 고라실 : 쉼바탕이 마을의 동쪽으로 난 골짜기. 골짜기 입구에 소류지가 있다.
- 구절굴고랑 : 소성리 남쪽 담배밭고랑의 상부를 말한다.
- 노간여 : 가승구지 서남쪽 산줄기의 끝에 있는 바위 너덜.
- 노루골 : 영보리의 남쪽 해안에 있는 골짜기. 풍너너물골과 진골 사이에 있다.
- 녹아니뿌리 : 가승구지 서남쪽 산줄기의 끝. 보령화력 수문통의 남쪽에 있다.
- 논골 : 영보리 수해 마을의 서쪽 끝에 있는 골짜기. 간골과 동무전 사이에 있다.
- 담배밭고랑 : 영보리 솟재마을 남쪽 골짜기. 담배밭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당산 : 가승구지 북쪽에 있는 산으로 당집이 있다. 20여 년 전까지 당제를 지냈는데 소나무를 신목으로 삼았다.
- 당산 : 갈망시에서 수해로 넘어가는 고개의 서쪽이다. 이곳에는 당집이 있었고 50여 년 전까지 당제를 지냈다. 수해와 갈망시 사람들이 위하던 곳이다.
- 당산 : 영보리 쉼바탕 마을과 진골 마을 사이에 있는 진골고개 서쪽에 있다. 당집은 없고 신수인 소나무 밑에서 음력 정월 초이튿에 당제를 지낸다.
- 대우치(大牛峙) : 큰솟재의 한자 표기.
- 돛산물 : 영보리 밤까시 마을 서쪽 산의 북쪽 해변, 바지락 등 해산물이 풍부하다.
- 동무전 : 영보리 수해 마을 서쪽에 내민 산의 끝.
- 동무전안팎 : 영보리 수해 마을 서쪽 끝. 동무전의 동쪽 해안을 통칭한다.
- 뒷골 : 솟재 마을 양지뜸의 동쪽 골짜기. 부처골의 북쪽에 있다.
- 띠아골 : 영보리의 남쪽 해안 중 가장 동쪽에 있는 골짜기. 이 골짜기의 동쪽 능선에 대어 간척지 제방을 축조하였다.
- 매미 : 영보리의 남쪽 해안이다. 진골과 띠아골 사이에 있다.
- 모퉁이 : 영보리 수해 마을에서 솟재 마을 쪽으로 길가에 길게 늘어선 마을.
- 밤까시 : 영보리의 북동쪽 소성리 홍축굴 서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골짜기의 북서쪽 해안에는 병원선의 격납고가 있었다.

- 버둑말 : 영보리 수해와 가승구지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 수해 간척지 뚝 옆에 있는 마을이다.
- 벗너머골 : 수해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복사골 : 영보리 간척지 제방 안쪽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골짜기 가운데의 논에서 보면 마을이 복숭아꽃의 형국이 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복신애비 : 가승구지 서남쪽 보령화력 수문통과 주벽등 사이의 해안.
- 봉오재 : 영보리 밤까시와 사타골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 충청수영에서 운영하던 망해정봉수대가 있던 곳이다. 한말 포대(砲臺)를 만들기 위해 구덩이를 파 봉수대는 훼손되었다.
- 봉당골 : 영보리 중부들 남쪽의 골짜기이다. 생새골과 원전 사이이며 위사타골의 맞은쪽이다.
- 봉화대(烽火臺, 봉화대) : 오천면 영보리 밤까시 마을 뒤에 있는 봉화대. 충청수영에서 운영하던 권설봉수임. 원산도에서 받아 충청수영으로 전하였다. <1911, 朝鮮地誌資料>
- 부채산 : 영보리 싹바탕 마을과 오포리 감나무골 사이의 산.
- 부처골 : 영보리 솟재 마을 양지뜸 동쪽 골짜기. 뒷골의 남쪽에 있다.
- 삼봉재 : 가승구지 남쪽에 있는 산봉우리.
- 삼봉재 : 영보리 솟재 마을의 동북쪽 산 꼭대기로 소성리, 영보리, 교성리의 경계를 이룬다.
- 싹끼미 : 가승구지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앞을 작은 자갈로 된 사구가 막아 안쪽이 논으로 개간되었다. 산기슭에 패총이 있었다.
- 생새골 : 영보리의 중앙부 중부들 남쪽에 있는 골짜기. 아래사타골의 맞은쪽이며 절고랑과 봉당골의 사이이다.
- 서낭댕이 : 갈마무시에서 수해로 넘어가는 고개의 꼭대기에 있다.
- 석소탕(石所湯) : 싹바탕의 한자 표기.
- 싹바탕이 : 영보저수지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소우치(小牛峙) : 작은솟재의 한자 표기.
- 솟재 : 소성리 성안 마을과 교성리 김신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영보리의 동쪽 부분이다. 산으로 둘러싸이고, 서쪽으로 긴 골짜기를 통하여 바다와 연결된다. 안에는 이시방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양지뜸과 음지뜸으로 구분된다.
- 송아치바위 : 가승구지 마을 서남쪽 해변 산에 있는 바위. 풍수적으로 보아 송아지가 누운 형국이라고 한다.

- 수문통 : 보령화력의 배수문으로, 원래는 산과 이어졌으나 수문이 되었다고 한다.
- 수해 : 영보리의 서쪽에 있는 마을.
- 수해염전 : 수해 마을 서쪽, 벗너머골 남쪽에 있던 작은 염전.
- 술둥 : 가승구지 북쪽에 있는 당산에서 동쪽으로 내민 지형.
- 아래사타굴 : 영보리 중부 마을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 중부 마을과 위사타굴의 사이이다.
- 안산 : 영보리 솟재 마을의 남쪽과 오포리 사락배 마을 사이에 있는 산.
- 양지뜸 : 솟재 마을의 북쪽 부분.
- 영골 : 영보리 수해 마을 동쪽에 북쪽으로 난 골짜기.
- 영보저수지 : 영보리 가운데에 있는 저수지. 영보간사지와 함께 만들어진 것이다.
- 용바위 : 영보리 가승구지 당산 서쪽에 있는 바위. 굴이 뚫려있어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으며 1977년에 간척이 상륙했던 곳이다.
- 용바위 : 영보리의 남쪽 해안에 있는 띠아골 동쪽 능선 끝에 있는 바위. 바위 밑에 구멍이 있어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다.
- 우치리(牛峙里, 솟지) : 영보리 솟재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우포리(牛浦里) : 영보리 수해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원전 : 영보리 솟재 마을 남서쪽에 있는 샘. 안산의 북쪽 줄기의 끝이다. 개울가에 좋은 물이 나와서 예부터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다.
- 위사타굴 : 중부들 북쪽의 골짜기. 아래사타굴과 솟재 주먼지골 사이에 있다.
- 울변(栗邊) : 밤까지의 한자 표기.
- 울변리(栗邊里, 밤까지) : 영보리 밤까지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음지뜸 : 솟재 마을의 남쪽 부분.
- 작은귀설굴 : 영보리 솟재 마을에서 김신 마을로 통하는 골짜기. 큰솟재로 통한다.
- 작은솟재 : 소성리 성안 마을과 영보리 솟재 마을 사이의 고개.
- 장긋대 : 갈망시의 골짜기와 바다 사이에 있는 언덕, 작은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천주교회가 있는 곳이다.
- 절고랑 : 영보저수지 남쪽의 골짜기. 중부 마을의 맞은쪽이다.
- 절굴 : 영보리 섯바탕 마을의 동쪽, 고라실 안에 있는 골짜기. 안에 절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절터 : 섯바탕 마을 고라실 안쪽 절굴에 있는 옛 절터. 두 계곡이 합하여지는 동쪽에 있었다.

- 주먼지골 : 영보리 솟재 마을 읍지뜸의 동쪽 골짜기.
- 주벽등 : 가승구지 서남쪽 샘끼미와 복신애비 사이에 있는 암석으로 된 해안. 옛날 이곳에 주목을 매었다고 한다.
- 중부 : 영보리 저수지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 중부들 : 영보리 영보저수지와 솟재 마을 사이에 있는 들.
- 중상골 : 쉼바탕 마을의 동남쪽 골짜기.
- 진갱말 : 소성리 복사골 동쪽에 있는 옛 바닷가.
- 진갱변 : 영보리 간척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진골 : 영보리의 남쪽 해안에 있는 긴 골짜기로 골짜기 안에 마을이 있다. 쉼바탕이 마을과 통한다.
- 진골고개 : 영보리 쉼바탕 마을과 진골 사이에 있는 고개.
- 진곶지(津串之) : 가승구지의 한자 표기.
- 진곶지리(津串之里,가승구지) : 영보리 가승구지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초상골 : 가승구지 동쪽에 있는 주민의 거주가 없는 골짜기.
- 큰산 : 갈마무시와 밤까시 사이에 있는 산. 밤까시에서는 가마귀재라고 부른다.
- 큰솟재 : 교성리 김신 마을과 영보리 솟재 마을 사이의 고개. 김신재, 큰고개라고도 부른다.
- 통개 : 영보리 갈마무시의 동쪽 큰산 밑에 있는 작은 골짜기. 바닷물이 통하고 있어 통개라고 부른다.
- 통개골 : 소성리 서쪽 끝에 있는 골짜기이다. 바닷물이 통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풍너너물골 : 영보리의 남쪽 해안에 난 골짜기. 이곳의 모래 언덕에 장풍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골짜기로 오포리-영보리 간 포장도로가 지난다.
- 함박골 : 갈마무시 골짜기의 동남쪽 골짜기.



가승구지 철책(1988)



가승구지(2008)



밤까시 마을(2004)



숫재 마을(2007)

7. 오포리(烏浦里)

본래 오천군 천동면(川東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호포리(狐浦里), 심동(深洞), 수정동(水晶洞), 선동(蟬洞), 양촌(陽村), 금암리(金岩里) 일부를 병합하여 오동(烏洞)과 호포(狐浦)의 이름을 따서 오포리라 하여 보령군 오천면에 편입하였다.

- 가그말 : 오포리 동쪽 끝에 있는 큰 마을. 교성리 지장굴과 경계한다. 사락배, 아래뜸, 위뜸으로 나누어진다.
- 가재골 : 오포리 가그말 위뜸 원정굴 서쪽에 있는 골짜기. 산이 가재 형국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가괘 : 오포리 점굴에서 지픈골 여수해 쪽으로 돌아가는 모퉁이. 옛날에는 바다가 깊어 중선배를 대기도 했다고 한다.
- 가괘산 : 오포리 점굴과 지픈골 사이에 있는 경사가 급한 둥그런 산.
- 가괘장벌 : 가괘 앞에 있던 백사장.
- 간사지들 : 오포저수지 아래쪽에 있는 들.
- 감나무골 : 오포저수지 서쪽으로 펼쳐진 들 북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 개건너 : 오포리 매미골의 북쪽 들 건너를 통칭하는 이름. 간척사업 이전에는 바다 건너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개목 : 오포리 가그말의 입구.
- 고래굴 : 사락배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들의 북쪽이다.
- 공동묘지 : 오포리의 북쪽 사락배 마을의 그적골과 고래굴 사이에 있는 산.
- 그적골 : 오포리 마을의 북쪽, 사락배 마을의 서북쪽으로 난 골짜기. 작사니골과

고래굴 사이에 있다.

- 낙암(樂岩 : 사락배의 한자 표기.
- 농배 : 오포리 여수해의 서쪽 끝에 있던 바위.
- 당산 : 여수해 윗말과 지픈골 사이의 산. 여수해 사람들이 정월 초튕날 제를 지냈다. 보령화력이 들어선 후로는 지내지 않는다.
- 도둑굴 : 오포리 매미골 동쪽의 깊은 골짜기.
- 도랑굴 : 오포리 매미골의 남쪽 골짜기.
- 동틀 : 오포리 간척지 제방의 남쪽과 연결된 지역. 옛날에 배를 대었다고 한다.
- 두리뚝병골 : 오포리 수청구지 아래뜸의 남쪽 골짜기.
- 만리성재 : 오포리 매미골 동쪽의 산꼭대기.
- 만선뿌리 : 오포리 개건너 바다 쪽으로 내민 산줄기. 호랭이코쭈뻐기라고도 한다.
- 말무덤 : 오포리 가그말 화개고랑 동쪽에 있는 산자락. 말을 묻었다는 전설이 있다.
- 매미골 : 오포리 가그말과 수청구지 사이에 있는 큰 마을. 아래뜸 위뜸이 있다.
- 매봉재 : 오포리 가그말과 교성리 지장골 사이에 있는 중메의 가그말 쪽으로 내민 봉우리.
- 모새굴 : 오포리 가그말 아래뜸에서 교성리 중메고랑을 통해 지장굴로 통하는 재.
- 목논 : 오포리 가그말 입구의 논. 좁은 목을 이룬다.
- 바닥굴 : 오포리 가그말 입구의 들.
- 배끝뿌리 : 매미골 입구 수청구지와 매미골 사이 청룡뿌리의 끝. 이곳에는 간척사업 이전에 배를 대었다.
- 병풍바위 : 오포리 가그말 원정굴 서쪽에 있는 병풍같은 바위이다. 이 바위에 해가 바로 들면 점심때가 되기 때문에 들에서 일하다가도 이때에 맞추어 집에 들어오곤 했다고 한다.
- 보안 : 오포저수지 상류, 작사니골 앞에 있는 논.
- 사락배 : 사락배 마을 앞 들 가운데에 있던 큰 바위. 경지정리할 때 땅에 묻어 없어졌다.
- 사락배 : 오포리의 북쪽 교성리와의 경계에 있는 마을. 간척사업 이전에는 해수가 올라오던 곳으로 교성리로 통하는 들의 서북쪽과 동남쪽에 있는 마을을 통칭한다. 마을 앞에 있던 바위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사암리(舍岩里, 사락바위) : 오포리 사락배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삼냥굴 : 오포리 가그말 아래뜸의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삼억재 : 오포리 수청구지에서 주교 송학리 첩골로 통하는 고개.
- 새말림고랑 : 오포리 가그말 위뜸의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아래뜸 양지뜸의 맞은 쪽 골짜기이다.
- 새암굴 : 오포리 가그말 위뜸 남쪽에 있는 골짜기. 둠병굴과 가재골 사이에 있다.
- 서풍굴 : 오포리 수청구지 양지뜸의 동쪽 골짜기. 매미골로 통하는 고개가 있다.
- 서풍굴재 : 매미골과 수청구지 서풍굴 사이의 재.
- 선동(蟬洞) : 매미골의 한자 표기.
- 수문 : 여수해의 윗말과 아랫말 사이에 있었다.
- 수문매미 : 여수해 아랫말에 있는 수문 안쪽의 논.
- 수정동(水晶洞) : 수청구지의 한자식 표기.
- 수청구지 : 오포리 매미골 서쪽 골짜기에 있는 큰 마을. 양지뜸, 음지뜸이 있다.
- 숙구레 : 오포리 가그말 앞 들.
- 심동(深洞) : 지픈골의 한자 표기.
- 아래뜸 : 오포리 가그말의 북쪽 마을. 아래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뜸, 모새굴이 이에 속한다.
- 아랫말 : 여수해의 서쪽 마을.
- 안산 : 오포리 가그말의 서북쪽에 있는 산. 새말림 고랑의 북서쪽이다.
- 안산쪽뿌리 : 오포리 가그말의 북서쪽으로 뻗은 안산의 끝.
- 양미고랑 : 지픈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보령화력 입구의 북쪽 마을이다. 보령화력 발전소의 건설로 여수해의 이주민이 들어오고, 보령화력 근로자들도 들어와 근래 인구가 급증한 곳이다.
- 양지뜸 : 오포리 가그말 아래뜸의 서북쪽 마을.
- 양지뜸 : 오포리 수청구지의 동쪽 마을.
- 양촌(陽村) : 가그말 북쪽 양지뜸의 한자 표기.
- 여소포(如所浦) : 여수해의 한자 표기.
- 여수해 : 오포리의 서쪽 끝에 있던 마을. 윗말, 아랫말이 있었다. 20여 호의 주민이 김살을 매고 각종 해산물을 생산했던 마을이었다. 보령화력의 건설로 모두 이주하고 발전소 부지가 되었다. 당진군 석문면으로 집단 이주하였으며 지픈골, 양미고랑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 오동(烏洞) : 가그말의 한자 표기.
- 오암(烏岩) : 가그말의 한자 표기.

- 오얏굴 : 여수해 아랫말 남쪽의 골짜기.
- 오포1리 : 1반 원년골, 2반 새암골, 3반 양촌, 4반 사락배.
- 오포2리 : 1·2반 매미골, 3반 개진너.
- 오포3리 : 1·2반 수청구지, 3반 중골, 4반 깊은골.
- 운개재 : 오포리 가그말 원정굴에서 주교면 은포리로 통하는 재.
- 원논 : 안산쭈뿌리 서남쪽에 있는 논. 간척사업 이전의 논이라는 뜻이다.
- 원정굴 : 오포리 가그말의 남동쪽으로 뻗은 깊은 골짜기. 이 골짜기를 통하여 주교면 은포리 은개로 이어진다.
- 위뜸 : 오포리 가그말의 남동쪽 큰 마을.
- 위뜸 : 오포리 매미골의 위쪽 마을.
- 윗말 : 여수해의 동쪽 마을이다.
- 음지뜸 : 오포리 수청구지의 서쪽 마을.
- 작사니골 : 사락배 마을 남쪽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 오포저수지 위에 있다.
- 점 : 오포저수지 제방의 남쪽 골짜기 마을. 그릇을 굽던 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점골 : 오포리 가그말의 서쪽, 안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옛날 그릇을 굽던 점이 있었다고 한다.
- 점굴 : 오포리 수청구지 청룡뿌리 서쪽에서부터 간척지 제방에 이르는 마을. 옛날 점이 있었다고 한다.
- 점재 : 오포리 매미골에서 점으로 넘어가는 재.
- 점동(蟬洞, 락미골) : 오천면 오포리 ‘매미골’ <1911, 朝鮮地誌資料>
- 주끝이 : 여수해 윗말에서 동북쪽으로 내민 모래 언덕으로 일종의 사취(砂嘴)이다. 이곳에 배를 대었다. 모두 보령화력의 탄재 처리장이 되었다.
- 중들 : 오포리 가그말 북서쪽의 들. 숙구레와 바닥굴의 사이에 있는 들이다.
- 중메 : 오포리 가그말과 교성리 지장굴 사이에 있는 산.
- 지픈골 : 오포리 서쪽 점굴과 여수해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골짜기가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지픈골 : 오포리 수청구지 마을의 남쪽 골짜기.
- 척굴재 : 오포리 가그말 위뜸 가재굴에서 주교면 송학리 척굴로 넘어가는 재.
- 청룡뿌리 : 매미골과 수청구지 사이에 내민 산줄기. 매미골에서 보아 좌청룡에 해당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 청룡뿌리 : 오포리 수청구지의 서쪽에 북쪽으로 내민 산줄기.

- 청춘재 : 지픈골 안에 있는 한양 조 씨 진사공의 재실이다.
- 초분골 : 오포리 가그말 위뜸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 초분이 많았다고 전한다.
- 큰골 : 오포리 매미골 위뜸의 동남쪽 골짜기.
- 한전저수지 : 지픈골 입구에 있는 저수지로 개인이 막았는데 현재 보령화력 소유이다.
- 함박골 : 오포리 가그말 효자문과 원정골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
- 호랭이코쭈백이 : 만선뿌리의 다른 이름.
- 호포(狐浦) : 여수해의 한자 표기.
- 호포리(狐浦里, 여슈익) : 여수해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흙배미 : 매미골 입구에 있는 논. 옛날에 나무를 판 흙통으로 물을 대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화개고랑 : 오포리 가그말에서 화개재로 오르는 골짜기. 지장굴재를 통하여 화개재에 이른다.
- 효자문 : 오포리 가그말의 북서쪽 화개고랑 입구에 있다. 신응수(申應秀)의 효자문으로 광서18년(1892) 6월에 정려를 받았다.



가그말 신응수 효자문(1995)



수청구지(2005)

8. 외연도리(外烟島里)

본래 오천군 하서면(河西面)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횡견도리(橫見島里), 황도리(黃島里), 오도(烏島), 대청도(大靑島)을 병합하여 외연도리라 해서 보령군 오천면에 편입하였다.

- 검등여 : 흑서
- 관장도 : 외연도 봉화산 북쪽에 있는, 작은 2개의 섬이다. 주민들은 보통 ‘관쟁이’라고

부르는데 관장도라고 표기한다. 남쪽의 큰 섬에는 가운데에 멍석만큼 식생이 있고, 북쪽에 있는 작은 섬에는 식생이 없다. 두 섬 모두 노란색 바위로 되어있다. 외연도와 관장도 사이에 20기 정도의 주목망을 매어 고기를 잡았다.

- 관쟁이 : 관장도
- 피파리 : 변도
- 노랑여 : 황서
- 달배 : 세여
- 당산도 : 외연도 서쪽, 당산외 남쪽에 있는 섬이라 주민들은 ‘판당산외’라고 부르고, 해도에는 당산우도라고 표기되어 있다. 당산외 남쪽 속칭 ‘고래조지’라고 하는 해안과 이 섬 사이에 주목망을 매어 많은 고기를 잡았다.
- 당산우도 : 당산도
- 대청도 : 외연도 서북쪽에 있는 섬이다. 보통 주민들은 ‘큰청섬’이라고 부르는데, 대청도라고 표기한다. 섬 주변이 모두 절벽이라 사람은 거주할 수 없어 예부터 무인도이다. 섬에는 약초인 더덕, 잔대가 많다고 한다. 섬 남쪽은 바다가 깊고, 섬으로 둘러싸여 파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선박의 정박지로 이용된다. 1970년대 염소를 방목하였다. 현재는 환경보전 측면에서 없애려고 하나 없어지지 않는다.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 최유엄(崔有滄)이 바른 말을 하다가 이곳에 귀양와서 살았다고 전한다.
- 독섬 : 석도의 우리말 이름
- 돈여 : 소청도
- 돛다른여 : 먹엄과 비깡이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이다. 주변은 바위 너털이다.
- 등대섬 : 대수도
- 판당산외 : 당산도
- 판먹엄 : 외오도
- 판비깡이 : 외횡건도
- 뛰어내리는곳 : 외연도 큰청섬 서남쪽 벼랑.
- 매배 : 외연도 마을 북쪽 끝에 있는 바위 섬.
- 멍머리 : 외연도 큰청섬의 서쪽 끝.
- 무마도 : 외연도 남쪽 독섬과 초량도(초맹이) 사이에 있는 질멸으로 불리는 섬이다. 독섬에는 풀이 없으나 질멸(무마도)에는 풀이 자란다.
- 변도 : 황도 동북쪽에 있는 섬이다. 보통 주민들은 ‘피파리’라고 부른다. 나무가 많으나

물이 없고, 평지가 없어 거주할 수 없다. 주민들이 비웃이라고 부르는 식물이 많고, 맹택이라고 부르는 제비 종류의 새, 바다오리 등이 많이 서식한다.

- 불경녀 : 흥서
- 석도(石島) :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먹엄(오도)북쪽에 있는 돌로 된 섬이다. 식생이 없어 보통 주민들은 ‘독섬’이라고 부르는데 석도(石島)로 표기한다. 주변에 주목망은 설치하지 않았고 예부터 낚시를 많이 하였다. 농어 부시리 등이 많았다고 한다.
- 설몽도 : 비깡이(황견도) 서쪽에 있는 섬이다. 주민들은 ‘설프녀’라고 부르고, 해도에는 설풍서라고 표기되어 있다. 풀이 자란다.
- 설풍서 : 설몽도
- 설프녀 : 설몽도
- 세여 : 외연도리 황견도(비깡이) 서쪽, 황도(느레) 동쪽에 있는 작은 섬이다. 주민들은 ‘시녀’라고 하거나 달처럼 둥글둥글 하여 ‘달배’라고도 부르는데 노란색이다. 해도에는 ‘세여’로 표기되어 있다. 나무는 없고 풀만 조금 자란다.
- 소청도 :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외연도 본섬 북쪽의 매배산 서쪽에 있는 바위섬이다. 주민들은 ‘돈여’라고 부른다. 물이 많이 들어오면 잠기는 바위이다.
- 수도(水島) : 외연도 봉화산 남동쪽에 있는 3개의 섬이다. 이들 섬을 보통 위수수떡, 가운데수수떡, 아래수수떡이라고 부르고, 위수수떡에는 근래에 등대가 들어서 등대섬이라고 부른다. 위수수떡(대수도, 등대섬)에는 1970년대 염소와 토끼를 방목하였다.
- 수수떡 : 수도, 외연도 동남쪽에 있는 섬.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 시녀 : 세여
- 아래수수떡 : 수수떡 섬 남쪽에 있는 섬.
- 오도(梧島) : 외연도의 남서쪽, 비깡이의 남동쪽에 먹엄이라고 불리는 섬이다. 몇 가구가 거주하다 1975년 독가촌 철수 정책으로 모두 이주하였다.
- 오도(梧島) : 외연도의 서남쪽, 황견도의 동남쪽에 있는 섬이다. 주민들은 ‘먹엄’이라고 부르는데 지도에 오도(梧島)라고 표기한다. 섬의 중앙 동쪽 기슭에 500~600평의 밭이 있었고, 우물이 있었다.
4가구가 거주하다 1975년 독가촌 철수 정책으로 모두 이주하였다.
- 외오도 : 외연도리 오도(먹엄) 동북쪽에 있는 작은 섬이다. 오도에 연결된 것처럼 보여 ‘판먹엄’이라고 부른다. 주변 바다가 낮아 오도 사이에 그물을 매지 못한다.
- 외황견도 : 외연도리 황견도 남쪽에 붙어있는 ‘판비깡이’라고 불리는 섬이다.
황견도(비깡이) 사이의 목에 주목망을 매어 조기, 멸치, 까나리 등을 잡았다. 우럭,

해삼, 전복 등이 많다. 칩, 동백나무 등이 우거져 있다.

- 위수수떡 : 대수도
- 중수도 : 외연도 봉화산 남동쪽에 있는 수수떡이라고 부르는 섬 중 가운데 섬이다.
- 중청도 : 외연도리 대청도 동쪽에 있는 작은 섬이다. 외연도 주민들은 보통 ‘즉은청 섬’이라고 부르는데 중청도라고 표기한다. 해안이 급경사라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 나무가 울창하여 예부터 외연도의 연료공급지였다. 약초인 더덕과 잔대가 많아 채취하였다.
- 질명 : 무마도
- 초량도 : 주민들이 ‘초맹이’라고 부르는 외연도 남쪽의 섬이다. 해도에는 초망서라고 표기되어 있다. 나무는 없다. 만조 때는 2개의 섬이 되고, 간조 때는 합쳐져 1개의 섬으로 보인다.
- 초망서(草芒嶼) : 초량도
- 홍서 : 외연도 봉화산 남쪽에 있는 수수떡이라고 불리는 3개의 섬 사이에 있는 바위이다. 붉은색이며, 주민들은 ‘불경녀’라고 부른다.
- 황서 : 외연도 서쪽, 망재산 서쪽에 있는 작은 섬이다. 주민들은 보통 ‘노랑여’라고 부른다. 풀은 없고, 바위의 색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흑서 : 외연도 서쪽 횡견도(비갱이) 북쪽에 있는 작은 섬이다. 주민들은 ‘검둥여’라고 부른다. 풀은 없고, 바위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중청도 앞에도 흑서(검둥여)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다.

1) 외연도(外烟島, 오얀도)

보령시의 서쪽 끝에 있는 섬이다. 섬이 남쪽으로 열려 있고, 왼쪽 산이 높기 때문에 오른쪽 산이 높은 어청도(울견도)와 비교하여 오얀도라고 하였다. 윈 섬이라는 뜻으로 오얀도로 불리고, 외연도(外烟島)로 표기된 것이다.

예부터 주변 어장의 중심 항구 역할을 하였다. 1975년 주변에 있는 작은 섬 즉, 먹섬(梧島), 비갱이(橫見島), 느레(黃島) 등에서 주민이 이주하였다. 마을의 뒷산에는 전횡 장군을 모신 당집이 있고 정월 보름에 소를 잡아 당제를 지낸다.

- 고라금 : 외연도 마을의 서북쪽에 있는 만입지이다. 옛날 기생들이 놀이 나왔다가 풍랑을 만나 죽어 비가 오면 이곳에서 장구소리가 난다고 한다.
장단을 맞추어 주면 장구소리가 커지고, 욱하면 소리가 작아진다고 한다.

- 고래조지 : 외연도 서쪽에 있는 망재산의 서남쪽 끝 부분. 노란 지층이 고래의 성기 처럼 나타나 있다.
- 노적봉 : 외연도 마을의 북쪽 고라금과 누적금 사이에 있는 작은 봉우리. 옛날 전횡 장군이 섬 주변을 운행하던 곡식 실은 배를 부채를 부쳐 끌어들이어 곡식을 쌓아 놓았다는 전설이 있다.
- 누적금 : 외연도 마을 북쪽 당산 너머에 있는 작은 만입지. 바닷가에서 민물이 나온다.
- 당산 : 외연도 마을 북쪽에 있는 낮은 산.
- 당산피 : 외연도 서쪽 망재산의 남쪽 부분을 말함.
- 대리돌 : 외연도 망재산의 동남쪽 끝. 즉 상월의 남쪽 끝.
- 돌사금 : 외연도 마을 북쪽 당산 너머의 작은 만입지. 누적금과는 언덕을 경계로 한다. 이곳에는 흰색과 검은 색의 작은 자갈이 많아 바둑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마당배 : 외연도마을 동쪽에 있는 봉화산의 동남쪽 끝에 있는 바위. 바위가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망재산 : 외연도 마을 서쪽에 있는 산. 과거 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서쪽 바다 건너에 있는 비깽이와 불을 피워 신호하던 곳이다.
- 매배산 : 외연도 당산 북쪽의 매배와 이어진 산.
- 명금 : 외연도 봉화산과 당산 사이의 만입지로 돌사금의 동쪽 부분이다.
- 병풍배 : 외연도 마을 동쪽 봉화산의 동쪽 바닷가에 있는 바위. 병풍처럼 벼랑을 이루어 붙여진 이름이다.
- 봉화대(烽火臺, 봉화대) : 오천면 외연도리. 어청도에서 받아 녹도로 전하는 봉화대. 충칭수영에서 운영하던 권설봉수임. <1911, 朝鮮地誌資料>
- 봉화산 : 외연도 마을 동쪽 봉화대가 있는 높은 산. 충칭수영에서 운영하던 권설봉수로 어청도에서 받아 녹도에 전하였다. 높이 273m이며 삼각점이 있다.
- 삭금 : 외연도 망재산 서쪽에 있는 작은 만입지.
- 상월 : 외연도의 서쪽, 망재산의 동쪽 끝 부분. 이곳에 방과제를 축조하였다.
- 안동네 : 외연도 마을 중 사구 북쪽에 있는 마을.
- 오안도 : 외연도를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 원 섬이라는 뜻.
- 옥대밭 : 외연도 봉화산의 동쪽 사면. 현재의 방과제 안쪽이다. 갈대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외연열도 : 외연도와 주변에 있는 작은 섬들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
- 장벌 : 외연도 마을 앞. 외연도의 가장 큰 만입지에 발달한 모래 백사장이다. 과거

에는 마을 북쪽에 있는 사구와 연결되어 아주 곱고 깨끗한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선착장 건설로 모두 훼손되었다.

- 장벌 : 외연도 마을 중 안동네 남쪽, 즉 사구에 위치한 마을.
- 중등글은빈단지 : 외연도 마을의 북쪽 매배산과 매배 사이의 산비탈.
- 집풍금 : 외연도 마을 동쪽에 있는 봉화산의 남쪽 해안.
- 차돌백이 : 외연도 큰청섬 서남쪽.

2) 황도(黃島, 느레)

오천면 외연도 서쪽에 있는, 보령시 관내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느레’라고 불리는 작은 섬이다. 15가구까지 살았으나 1975년 독가촌(獨家村) 철수사업으로 모두 이주하였다.

최후에는 5가구가 거주하였는데 경주 최 씨가 많이 거주하였다고 한다. 섬 안에는 논이 약 20여 마지기, 밭이 수백 마지기 있었다고 한다. 모든 집이 작은 배를 소유하였으나, 방파제가 없어 바람이 불면 물으로 올랐다고 한다.

마을의 서남쪽에는 당산이 있었고 당집도 있었다. 1970년대 염소를 방목하여 번식하였다. 요즘 환경보전 측면에서 없애려고 하나 없어지지 않는다.

- 황도동(黃島洞, 루려) : 외연도리 황도. <1911, 朝鮮地誌資料>
- 가운데다마끝 : 황도 동쪽 해안. 물썩뿌리와 관창배 사이에 있다.
- 갈밭고랑 : 황도의 북쪽 골짜기.
- 고래녀 : 황도 북서쪽 고래미 앞에 있는 바위 너덜.
- 고래물품는곳 : 황도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바위 구멍에 파도가 부딪쳐 고래가 물 품는 것과 같이 물기둥이 올라와 붙여진 이름이다.
- 고래미 : 황도 마을 서쪽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
- 관창배 : 황도 동쪽 해안에 있는 바위. 가운데 다마끝과 돌캐 사이에 있다.
- 글썩배 : 황도의 북쪽, 동끝단여의 동쪽에 있는 바위,
- 기와집다랭이 : 황도 남서쪽 산기슭.
- 담살무녀 : 황도 북쪽에 있는 바위 너덜. 상투배와 담살무녀 사이에 있다.
- 당산 : 황도 마을의 서남쪽에 있는 산이다. 神樹로는 뽕나무 팽나무 등이 있었고 당집도 있었다. 음력 4월 그믐날 밤에 당제를 지냈다. 당집 안에는 수백 년 된 무쇠술이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녹이 슬지 않았다고 한다. 그릇, 시루, 술잔 등을 그대로 두고 이주하였으나 모두 없어졌다고 한다.

- 당샘 : 황도 마을의 남쪽에 있는 샘. 당샘이라고도 한다. 식수로 사용하지는 않고 당채 지낼 때만 사용하였다.
- 대궐터 : 황도의 중앙부 고개에 있는 옛 집터. 기왓장이 많이 출토된다.
- 대갈은여 : 황도 동쪽에 있는 바위 너덜. 아래밭밑과 물썩뿌리 사이에 있다.
- 돌캐 : 황도 동쪽 해안. 관창배와 돌캐판여 사이에 있다.
- 돌캐판여 : 황도의 동쪽 해안. 돌캐 앞에 있는 돌너덜.
- 동끝단여 : 황도의 북쪽 끝에 붙은 바위 너덜.
- 마당너리 : 황도 마을 앞 해안의 오목한 곳. 샘고랑의 앞이다.
- 목개 : 황도의 동쪽 해안. 투구배와 송날목개 사이에 있다.
- 목녀 : 황도 북쪽에 있는 바위섬. 속목녀와 상투배 사이에 있다.
- 물썩뿌리 : 황도 동쪽 해안에서 동쪽으로 내민 뾰족한 곳. 대갈은여와 가운데다마 끝 사이에 있다.
- 밧심나리 : 황도 마을 북쪽 해안.
- 밧밭재 : 황도 마을에서 당샘으로 넘어가는 고개.
- 배넘어다니는판여 : 황도 동쪽에 있는 간조 때 나타나는 바위 너덜. 원두깨비녀와 송녀 사이에 있다.
- 상투배 : 황도 북쪽에 있는 바위 섬. 목녀와 담살무녀 사이에 있다.
- 샘고랑 : 황도 마을 북쪽 골짜기. 유골의 반대편이다.
- 속목녀 : 황도 북쪽에 있는 바위 섬. 큰가녀와 목녀 사이에 있다.
- 송날목개 : 황도의 동쪽 해안, 목개와 유골 사이에 있다.
- 송녀 : 황도의 남동쪽 끝에 있는 바위 너덜.
- 시개빈여 : 황도 동쪽에 있는 바위 너덜. 원두깨비녀와 송녀 사이에 있다.
- 아랫밭밑 : 황도의 동쪽 해안. 윗밭밑과 대갈은여 사이에 있다.
- 업진배 : 황도의 북동쪽에 있는 바위. 창배와 투구배 사이에 있다.
- 원두깨비녀 : 황도 동쪽에 있는 간조 때 나타나는 바위 너덜. 원돌개밭 판여의 남쪽에 있다.
- 원두깨비녀 : 황도 동쪽에 있는 바위 너덜. 돌캐판여와 시개빈여 사이에 있다.
- 원돌개밭판여 : 황도 동쪽에 있는 간조 때 나타나는 바위 너덜.
- 윗밭밑 : 황도의 동쪽 해안. 유골과 아랫밭밑 사이에 있다.
- 유골 : 황도의 가운데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송날목개와 윗밭밑 사이에 있다.
- 잠살무녀 : 황도 북쪽에 있는 바위 섬. 칼가녀와 담살무녀 사이에 있다.

- 지아집다랭이 : 황도의 남동쪽 산기슭.
- 창배 : 황도의 동북쪽에 있는 바위. 업진배와 갈밭고랑 사이에 있다.
- 칼가녀 : 황도 북쪽에 있는 바위 섬으로 잠살무녀의 동북쪽에 있다.
- 큰가녀 : 황도 북쪽에 있는 바위 섬. 고래녀의 북쪽에 있다.
- 큰산 : 황도의 북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 164m이다. 꼭대기에 삼각점이 있다.
- 투구배 : 황도의 북동쪽에 있는 바위. 목개와 업진배 사이에 있다.
- 팽나무샘 : 당샘의 다른 이름.

3) 횡견도 (橫見島, 비깡이)

외연도의 서쪽에 있는 보통 ‘비깡이’라고 불리는 섬이다. 무인도 중에서는 상당히 크고, 평지도 넓어 2000~3000평의 밭이 있었고 최대 7가구가 거주하였었다. 1975년까지 4가구가 거주하였는데 서해안에 간척이 자주 출몰하여 인구가 적은 섬을 비우는 독가촌 철수 정책으로 보상을 받아 모두 이주하였다. 일부는 외연도로 이주하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최후로 거주하였던 사람은 경주최씨, 평산신씨, 제주고씨, 장씨였다. 주민은 당산 밑에 거주하였다.

횡견도 동남쪽에 있는 작은 섬인 외횡견도(판비깡이) 사이에 주목망을 매어 조기, 갈치, 멸치, 까나리, 새우 등을 잡았었다. 섬에는 소나무는 드물었고 동백나무, 사철나무, 보리수 나무 등이 있어 빨감으로 이용되었으며, 섬 주변에는 김, 미역, 해삼, 전복 등이 많고, 특히 자연산 김과 미역은 유명하였다.

1970년대 염소를 방목하였다. 현재는 환경보전 측면에서 없애려고 하나 없어지지 않는다.

- 당너머 : 횡견도 마을 남동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당산 줄기가 바다 쪽으로 뻗은 곳이다.
- 당산 : 횡견도 마을 남쪽 산이다. 과거 횡견도에 살았던 주민들은 당이 있었거나 당제를 지내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당산에 있는 나무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는 당제를 지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뒷금동여 : 횡견도 서쪽에 있는 섬. 돌너털로 둘러싸여 있다.
- 판비깡이 : 횡견도의 남동쪽 작은 섬. 주변이 바위로 싸여 있다. 지도에는 外橫見島로 표기되어 있다.
- 마당너머 : 횡견도 섬의 북쪽 부분. 뱀의 목처럼 좁았다가 넓어진 지역을 통칭한다.

- 말끼미 : 횡건도 서남쪽의 오목한 부분. 좀 평평하여 밭도 있었고 사람도 거주할 수 있었다. 1960년대에 1가구가 거주하였다.
- 모새끼미 : 횡건도의 남쪽 끝.
- 빈덕잔진애비 : 잔진애비 남쪽에 있다. 해안은 바위너덜로 되어있다.
- 앞금동여 : 횡건도 북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 바위 너덜.
- 양줄 : 횡건도 마을 북쪽 큰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산줄기.
- 외횡건도(外橫見島) : 딴 횡건도의 한자 표기.
- 작은왕목아지 : 횡건도 마을 남쪽 지역으로 가는 좁은 통로.
- 잔진애비 : 큰왕목아지 서남쪽에 있는 좀 평평한 곳이다. 밭으로 개간되었다.
- 장벌 : 횡건도 마을 남쪽의 오목한 부분으로 백사장이 있어 장벌이라고 부른다.
- 질펀너머 : 빈덕잔진애비 남쪽의 오목한 부분.
- 큰산 : 횡건도 마을 서쪽에 있는 횡건도의 최고봉으로 꼭대기에 삼각점이 있다. 높이 154m이다.
- 큰왕목아지 : 횡건도 마을 남쪽 지역으로 가는 좁은 통로로 폭이 50~60cm 밖에 되지 않고 길이가 3m 정도 되는 좁은 통로이다. 동쪽으로는 모래 백사장과 연결 되지만 서쪽으로는 절벽을 이루어 위험한 곳이다. 작은 왕목아지의 남쪽이다.



당산(1970년대)



외연도 마을(2007)



외연도 마을(1990년대)



고라금 해안(2008)

9. 원산도리(元山島里)

본래 오천군 하남면(河南面) 지역으로 고란도(孤蘭島) 또는 고만도(高巒島)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선촌리(船村里), 진고지리(鎭串之里), 점촌리(點村里), 진촌리(鎭村里), 초전리(草箭里), 사창리(射倉里), 구터리(鳩峙里), 저두리(豬頭里), 외죽도(外竹島), 증도(甌島), 군관도(軍官島)를 병합하여 원산도리라 해서 보령군 오천면에 편입하였다. 고려 25대 충렬왕(忠烈王) 때 대사성 최해(崔澐) 부자가 이곳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시를 지어 인물과 풍습을 읊었다.

- 가문여산 : 원산도 도투머리 마을 동쪽 바닷가에 있는 산.
- 간사지 : 원산도 구찌 마을과 사창 사이에 있는 간척지. 아래쪽은 염전으로 위쪽은 논으로 이용되었다.
- 간사지 : 원산도 중앙부 구찌 마을의 북쪽 간척지.
- 간사지 : 원산도에서 가장 큰 선촌간척지의 염전 서쪽에 있는 마을. 간척지 제방 축조 때 인부들이 기거하면서부터 생긴 마을이다.
- 간사지 : 원산도의 선촌, 진고지, 구찌 마을 사이에 있는 가장 큰 간척지. 1929년 썸에 막았다고 한다.
- 개건너 : 천마지 마을의 남쪽에 있는 마을. 작은말의 남쪽 부분이다.
- 개방댕이 : 원산도 서남쪽 중봉의 서쪽에 있는 낮은 봉우리.
- 거먼바위 : 원산도 서북쪽 끝에 붙은 바위.
- 고란도(孤蘭島) : 원산도의 다른 이름.
- 고랑말 : 원산도 진고지 마을의 남쪽 산밑에 있는 마을.
- 고름쟁이골 : 원산도 선촌의 서남쪽 언덕 너머이다. 원산도에서 가장 큰 간척지의 서쪽 골짜기이다. 주변 산에 고린장으로 불리는 백제 고분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고름쟁이산 : 원산도의 집너머골 간사지와 고름쟁이골 사이에 있는 산으로, 고린장으로 불리는 백제 고분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고만도(高巒島) : 원산도의 다른 이름.
- 공동묘지 : 원산도 도투머리 서쪽 대화양식장의 서쪽에 붙어 있는 낮은 산이다.
- 공장 : 원산도의 선촌, 진고지, 구찌 마을 사이에 있는 원산도에서 가장 큰 간척지로 ‘간사지’라고도 불리고 ‘공장’이라고도 불린다.

1929년쯤에 막았는데 큰 공사장이었기 때문에 공사장이라고 불리다가 줄여서 ‘공장’으로 부른다고 한다.

- 관가 : 원산도 짐말 서남쪽 오봉산 밑에 있는 마을. 옛 원산진이 있던 곳이다. 많은 기와가 출토된다.
- 관개 : 관가의 다른 이름.
- 관개재 : 원산도 짐말 섬창말에서 관가로 통하는 재.
- 구랑들 : 원산도 짐말과 짐말 백사장 사이의 들.
- 구시골 : 원산도의 서쪽 해안에 있는 골짜기. 높은장벌의 서남쪽에 있다.
- 구억말 : 도랫말의 다른 이름.
- 구찌 : 원산도의 중앙부 북쪽 해안에 있는 마을.
- 구치(鳩峙) : 원산도 구찌의 한자 표기.
- 구치동(鳩峙洞, 굿지) : 원산도리 구찌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군관도(軍官島) : 궁과무니의 한자 표기.
- 궁과무니 : 궁과무니의 다른 이름.
- 궁과무니 : 원산도 서쪽 풋살 북쪽에 있는 작은 섬. 큰궁과무니와 작은궁과무니의 2개 섬으로 되어있다.
- 까그모탱이 : 원산도 진고지 아랫말의 동쪽 모퉁이. 안산의 북쪽이다.
- 끝샘 : 원산도 선촌 마을 서쪽에 있는 샘. 큰샘의 남서쪽에 있다.
- 남작묘 : 원산도 천마지 당산과 공동묘지 사이에 있는 낮은 산(33.5m).
- 납닥산 : 원산도 구찌 마을과 방죽 사이에 있는 낮은 산.
- 너분여 : 원산도 구찌와 사창 사이의 남쪽 해안에 있는 바위 너덜.
- 너분여산 : 원산도 구찌 마을과 사창 사이에 있는 산으로 염전의 남쪽에 있다.
- 너푸장벌 : 원산도 서쪽 풋살의 노루목쟁이와 거먼바위 사이의 들.
- 념말 : 원산도 짐말의 남동쪽 부분.
- 노루목쟁이 : 맹감산과 노루목쟁이여 사이의 낮은 부분.
- 노루목쟁이여 : 맹감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친 줄기의 끝에 딸린 바위 너덜.
- 높은장벌 : 큰이미고랑 북쪽에 있는 산.
- 단지녀 : 원산도 동쪽, 도투머리 큰산 남쪽 바닷속에 있는 바위 너덜. 간조 때 드러난다.
- 담배밭골 : 원산도 서쪽 풋살 윗말과 안동네 사이의 골짜기. 당산과 맹감산 사이에 있다.
- 당산 : 원산도 구찌 마을 윗말과 안산 사이에 있는 봉우리이다.

- 당산 : 원산도 구찌 마을에서 당제를 지내던 산이다. 구찌 아랫말의 북쪽에 있다. 당집은 없고 음력 정월 초하룻날 주당을 뽑아서 제를 지냈다. 제물은 돼지머리 과일 포 등을 썼다.
- 당산 : 원산도 도투머리 마을 동남쪽에 있는 산이다. 당집이 있었고 정월 초이튿에서 닷새 사이에 날을 잡아 제를 지낸다.
- 당산 : 원산도 서쪽 풋살 마을 남쪽에 있는 낮은 산이다. 정월 초하룻날 당제를 지냈다.
- 당산 : 원산도 선촌 마을 서쪽 산꼭대기이다. 당집은 남아있으나 당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지내지 않는다.
- 당산 : 원산도 진고지 마을 남쪽에 있는 산으로 당집이 있다. 당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내지 않는다.
- 당산 : 원산도 짐말의 서쪽 언덕 위에 있다. 큰 당과 적은 당이 있다. 당집은 남아 있는데, 1989년부터 당제를 지내지 않아 허물어지고 있다. 음력 정월 초이튿 저녁에 지냈다. 당집 주위에는 팽나무, 느티나무, 피나무 등 여러 나무가 어우러져 있다.
- 당산 : 천마지의 남쪽 개건너 마을 남쪽에 있는 산이다. 당집은 없고 1980년 중반까지 정월 초하룻날 당제를 지냈다.
- 당샘 : 원산도 선촌 마을 서북쪽에 있는 샘. 당제 지낼 때 사용하였다. 윗샘이라고도 부른다.
- 당샘 : 천마지 아랫말의 북쪽 광명초등학교 옆에 있는 샘.
- 대군관도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풋살마을 북쪽에 있는 2개의 섬 중, 동쪽에 있는 섬이다. 주민들은 보통 ‘큰궁과무니’라고 부른다. 숲이 울창하고 간조 때에는 넓은 간석지가 드러난다.
- 대하양식장 : 원산도 도투머리 서쪽 안산과 공동묘지 사이에 있는 대하 양식장.
- 대하양식장 : 원산도의 북쪽 큰밤섬과 탄밤섬을 연결하여 만든 양어장.
- 도래방죽 : 원산도 구찌 마을 남쪽 백사장 안에 있는 방죽. 바닷물이 출입하는 방죽으로 일종의 석호이다.
- 도랫말 : 원산도 사창 아랫말과 윗말 사이 모퉁이에 있는 마을. 턱금말 또는 구억말이라고도 한다.
- 도랫말 : 천마지 아랫말의 서쪽에 있는 마을. 원의중학교 옆에 있는 마을이다. 구찌로 통하는 길 모퉁이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 도투머리 : 원산도 동쪽 끝에 있는 마을. 원산도에서 가장 좁은 부분에 속한다.

- 뒷골 : 원산도 서쪽 풋살의 당산 남쪽 골짜기.
- 탄밤섬 : 원산도의 북쪽 큰밤섬과 제방으로 연결된 섬.
- 탄여 : 원산도 풋살 범진재 서쪽에 있는 바위 너덜.
- 똥섬 : 원산도 뱃너머와 대화양식장 사이에 있는 본섬과 연결된 작은 섬. 간조 때는 본섬과 연결된다.
- 똥섬 : 원산도 서남쪽 중봉의 남서쪽에 바다로 내민 돌출부.
- 똥섬 : 원산도 선촌 마을 남쪽 돌출부에 있는 작은 섬. 똥무더기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똥섬 : 원산도 풋살 윗말 앞에 있는 작은 섬.
- 마지똥 : 원산도 사창 아랫말에서 짐말로 돌아가는 모퉁이.
- 마과지 : 원산도 서쪽 도투머리 마을의 남쪽 해안이다. 해수욕장이 있다.
- 마과지 : 원산도 서쪽 짐말과 풋살 사이의 안풋살 앞바다.
- 맛가티 : 큰밤섬 동쪽, 즉 선촌의 당산에서 내민 돌출부이다.
- 망댕이뿌리 : 원산도 천마지 마을 서쪽에 있는 돌출부. 진장벌의 서쪽 끝에 있다.
- 멩감나무고랑 : 원산도 서쪽 끝에 있는 멩감산의 서쪽 골짜기.
- 멩감산 : 원산도 풋살과 이미고랑 사이의 산.
- 모래지똥 : 원산도의 북쪽 탄밤섬의 남쪽 마을이 있는 곳.
- 목너머 : 원산도 선촌 마을과 똥섬 사이.
- 모가지 : 원산도 서남쪽 중봉의 남서쪽에 있는 똥섬과 본섬의 연결부.
- 방죽 : 원산도 구찌 마을 당산과 천마지 마을 당산 사이에 있는 들이다. 이 들은 작은 만의 입구가 모래 언덕으로 막혀 안에 석호(澗湖)가 만들어지고 이곳에 퇴적이 이루어져 들이 된 것으로 보인다.
- 발너머 : 원산도 진고지 당산과 안산 사이의 능선 너머 바다쪽을 이르는 말. 주변에 밭이 있고 그 너머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백변 : 원산도 해수욕장을 부르는 다른 이름.
- 뱃너머 : 원산도 천마지와 도투머리 사이에 있는 공동묘지 산의 북쪽 해안.
- 범진재 : 원산도 풋살 큰이미고랑과 작은이미고랑 사이에 있는 산.
- 봉화대(烽火臺, 봉화대) : 오천면 원산도리 오봉산. 녹도에서 받아 영보리 밤까지 뒷산 봉화대로 전하던 봉화대. 충청수영에서 운영하던 권설봉수이다. <1911, 朝鮮地誌資料>
- 봉화재 : 짐말에서 오봉산으로 오르는 재.
- 사창(射倉) : 원산도 사창의 한자 표기.

- 사창 : 원산도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마을. 구찌와 짐말 사이에 있다.
- 살막태고랑 : 원산도 서남쪽 중봉의 남쪽 골짜기. 옛날 살막(고기잡이용의 임시 거처)이 있었던 곳으로 보인다.
- 삼상재바위 : 원산도 서남쪽 중봉의 서쪽 끝 돌출부. 세 바위가 있어서 삼상재 바위라고 불렀는데 주벽을 매느라고 1개는 훼손되었다고 한다.
- 삼태미고랑말 : 원산도 진고지 마을의 서쪽 부분. 삼태기(보령지방에서는 삼태미라고 부름)같은 골짜기에 위치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상고바위 : 원산도 서남쪽, 중봉의 서남쪽 끝에 있는 바위. 백사장의 옆이다.
- 새배락친디 : 원산도 서남쪽, 중봉의 서남쪽 바닷가. 바위너덜로 되어 있다.
- 색시골 : 원산도 구찌 마을 당산과 안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로, 해수욕장 쪽으로 열려있다.
- 색시골 : 원산도의 북쪽 해안에 있는 골짜기. 하나시와 수박구테기 사이에 있다.
- 샘골 : 원산도 짐말의 남쪽, 백사장의 북쪽 지역.
- 샘너머 : 원산도 서쪽 풋살의 선창 주변을 이르는 말.
- 샘너머 : 원산도 선촌 마을에서 서남쪽의 언덕 너머. 원산도에서 가장 큰 간척지와 염판으로 통한다.
- 샘너머 : 원산도 진고지 마을 당산 서남쪽 해안이다.
- 샘밭이 : 원산도 진고지 당산 서남쪽에 있는 샘의 밭이다.
- 서낭댕이 : 원산도 사창의 윗말과 짐말의 넘말을 연결하는 앵꽃의 가운데에 있다.
- 서낭댕이 : 원산도 서쪽 풋살 선창 마을에서 뒷골로 통하는 모퉁이에 있었다.
- 선촌(船村) : 원산도의 북쪽 끝에 있는 원산도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음식점, 상점 등이 밀집해 있으며 원산도의 교통 중심지이다.
- 섬창 : 원산도 서쪽 풋살 마을 서쪽 해안. 이곳에는 배를 대는 시설이 있고 여객선이 기항한다.
- 섬창말 : 원산도 짐말의 북서쪽 부분.
- 소군관도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풋살마을 북쪽에 있는 2개의 섬 중, 서쪽에 있는 섬이다. 주민들은 보통 '작은궁과무니'라고 부른다. 간조 때에는 큰궁과무니와 연결된다.
- 소록섬 : 소리도의 다른 이름.
- 소리개바위 : 원산도 진고지 당산 서쪽 능선 꼭대기에 있는 바위.
- 소리도 : 원산도 천마지 당산 동남쪽 백사장에 붙어있는 섬이다. 해수욕장의 가운데에 있다.

- 소의등 : 원산도 도투머리 해안에 있는 모래 언덕. 소의 등처럼 두두룩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술등에서 온 말로 보인다.
- 송아치고랑 : 원산도 서남쪽 중봉의 남쪽 골짜기. 살막태고랑과 상고바위 사이에 있다.
- 수문너머 : 원산도 짐말의 남쪽 해안 백사장의 바닷물이 통하는 부분.
- 시러무니 : 원산도 풋살 동북쪽에 있는 섬. 주민이 부르는 순수한 말이다.
- 시루도 : 시러무니의 다른 이름. 시러무니를 증도(甞島)로 표기하고 이것을 다시 순우리말로 풀어 부르는 이름이다. 원래는 시러무니이다.
- 아랫말 : 원산도 구찌 마을의 북쪽 해안가에 있는 마을.
- 아랫말 : 원산도 사창의 북쪽 마을. 염전의 서쪽이다.
- 아랫말 : 원산도 선촌 마을의 남쪽 부분.
- 아랫말 : 원산도 진고지 마을의 서쪽 부분.
- 아랫말 : 천마지의 중앙에 있는 마을. 광명초등학교 남쪽 마을이다.
- 아빠뜰 : 원산도 사창과 짐말 사이에 있는 들.
- 안동네 : 원산도 서쪽 풋살의 동쪽 마을.
- 안산 : 원산도 구찌 마을 남쪽 끝 해안에 있는 산봉우리. 아주 옛날에는 이곳에 당제를 지냈다고 전하나 현재의 주민들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 안산 : 원산도 도투머리 마을 서쪽에 있는 산.
- 안산 : 원산도 사창과 짐말 사이에 있는 산.
- 안산 : 원산도 진고지 마을 동쪽에 있는 산.
- 안산너머 : 원산도 사창과 짐말 사이의 안산 남쪽 해안.
- 안풋살 : 원산도 서쪽, 짐말과 풋살 사이의 작은 마을과 주변의 농경지를 말함.
- 앙트랑 : 원산도 선촌 윗말의 북쪽 끝 부분.
- 앞들녘 : 원산도 구찌 마을 가운데에 있는 들.
- 앞장벌 : 원산도 도투머리 마을 해안 모래 벌판이다. 소의등의 북쪽에 있다.
- 앞장벌 : 원산도 서쪽 풋살 마을 북쪽 해안.
- 애막고랑 : 원산도의 서쪽 안풋살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당산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과거 당제 지내는 기간 동안 출산하는 산모가 기거하며 아이를 낳던 집이 있었다. 80여 년 전에 없어졌다고 한다.
- 앵꽃 : 원산도 사창 윗말에서 짐말의 넘말로 넘어가는 재. 재의 가운데쯤에는 성황당이 있다.
- 염전 : 원산도 구찌 마을에 있는 간척지의 아랫부분에 있다.

- 엽판 : 선촌 진고지 구짜 마을 사이에 있는 간척지의 북쪽에 있는 큰 엽전이다.
- 오로봉 : 오로봉은 하남면 원산도의 주봉(가장 높은 봉우리)이니 봉화 5개를 올리기 때문에 그 수를 따라 붙인 이름이다. <1911, 朝鮮地誌資料>
- 오봉산 : 원산도리 서쪽에 있는 높은 산이다. 이곳에는 옛날 봉화대가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다.
- 외죽도(外竹島) : 팔죽섬의 한자 표기.
- 외죽도 : 원산도리 선촌 마을 북쪽과 태안군 고남면 영목 사이에 있는 작은 바위섬인데, 작은 섬이지만 숲은 많은 편이다. 주민들은 ‘팔죽섬’이라고 부른다.
- 용구멍 : 원산도 선촌 마을 북쪽 바닷가에 있는 해식 동굴.
- 용구멍뿌리 : 원산도 사창과 짐말 사이의 안산 남쪽에 있는 바위 너덜의 끝. 이곳에는 깊이 10여 m에 이르는 구멍이 있다.
- 용해멸 : 큰이미고랑의 북쪽 돌출부. 용의 머리와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우럭배 : 원산도 동쪽, 도투머리 큰산 남쪽에 있는 바위. 우럭이 많이 잡혀서 붙여진 이름이다.
- 원뚝 : 원산도 구짜 마을과 사창 사이 간척지의 둑. 1932년쯤에 축조했다고 한다.
- 원뚝 : 원산도 선촌 간척지의 둑. 1929년에 전라도 무곡도 사람들이 와서 막았다고 전한다.
- 윗말 : 원산도 구짜의 남쪽 부분에 있는 마을.
- 윗말 : 원산도 사창의 남쪽 마을.
- 윗말 : 원산도 서쪽 풋살의 서쪽 마을.
- 윗말 : 원산도 선촌 마을의 북쪽 부분.
- 윗말 : 천마지의 서쪽 부분에 있는 마을.
- 윗말샘 : 천마지 윗말의 북쪽에 있는 샘.
- 윗말샘 : 천마지 윗말의 북쪽에 있는 샘.
- 윗샘 : 원산도 선촌 마을 북서쪽에 있는 샘. 당샘이라고도 한다.
- 윗진고지 : 원산도 진고지 마을의 서쪽 고개 밑 마을.
- 이미고개 : 작은이미고랑에서 샘골을 통하여 짐말로 통하는 고개.
- 이미고랑 : 원산도 풋살 남쪽에 있는 골짜기. 1975년 초 독가촌 철수 정책으로 철수하였으며 작은이미고랑, 큰이미고랑이 있다.
- 이미재 : 작은이미고랑과 안풋살을 연결하는 재.
- 작은당 : 당산과 마을 사이에 있는 봉우리에 있다. 당산에는 큰당이, 이곳에는 작은

당이 있었다.

- 작은참삭금 : 원산도 풋살 마을 서쪽 해안.
- 장벌 : 원산도의 서쪽 끝에 있는 맹감나무 산의 서쪽 모래 해안.
- 재빼기 : 원산도 선촌 마을에서 진고지, 구찌, 해수욕장 쪽으로 통하는 도로가 통과하는 고개. 높지는 않지만 경사가 급하다.
- 재빼기 : 원산도 진고지 고랑말에서 천마지 윗말로 넘어가는 고개.
- 저두(猪頭) : 도투머리의 한자 표기. 현재는 도투머리보다 저두로 많이 불린다.
- 절터골 : 원산도 짐말 남쪽, 중봉산 서쪽 골짜기. 옛날 절이 있었다고 전한다.
- 점촌(點村, 첨마지) : 원산도리 천마지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중봉 : 원산도 풋살 남쪽 해안에 있는 산.
- 죽은궁과무니 : 궁과무니의 북쪽 섬.
- 죽은이미고랑 : 원산도 풋살 남쪽에 있는 골짜기. 서쪽으로 향한 골짜기이다.
- 증도(甌島)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원산도 북쪽에 있는 섬이다. 주민들은 보통 ‘시러무니’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시루섬’이라고도 부른다. 해도에는 증도로 표기되어 있다. 숲이 울창하고 남쪽에는 백사장도 있어 풍광이 좋다. 별장이 1채 들어서 있다.
- 진고지 : 원산도 중앙의 서쪽 부분에 있는 마을. 작은 만의 남쪽에 위치한다.
- 진곶지(津串之) : 원산도 진고지의 한자 표기
- 진등말 : 원산도 구찌 윗말에서 아랫말로 내려오는 낮은 능선 밑에 있는 마을.
- 진여 : 원산도 구찌 마을 남쪽 색시골 앞에 있는 바위 너덜.
- 진여뿌리 : 원산도 도투머리의 동남쪽 끝.
- 진장벌 : 원산도 천마지 마을의 아랫말에서 망댕이뿌리까지 이르는 긴 펄 땅으로 간조 때 드러난다.
- 진촌(鎭村) : 짐말의 한자 표기.
- 짐말 : 원산도의 서쪽 마을. 풋살과 사창 사이에 있다.
- 집너머골간사지 : 원산도에서 가장 큰 간척지의 고름쟁이산 서남쪽 부분을 일컫는다.
- 쪽다리골 : 구찌 마을 동쪽 큰산너머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의 하부는 간척지이다.
- 쪽다리골간사지 : 원산도에서 가장 큰 간척지의 남서쪽 골짜기 부분. 쪽다리골 밑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참새골 : 원산도 서쪽 맹감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천마지 : 원산도 진고지의 남쪽 작은 만 안에 있는 마을. 광명초등학교와 원의중학교가 있다. 윗말, 아랫말, 개건너, 도랫말로 구성되어 있다.

- 초전(草箭) : 풋살의 한자 표기.
- 큰골 : 도투머리 큰산과 안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밑에는 대하 양식장이 있다.
- 큰골양식장 : 도투머리 대하 양식장의 다른 이름.
- 큰궁과무니 : 궁과무니의 남쪽 섬.
- 큰바위 : 원산도 천마지와 도투머리 사이의 망뎡이뿌리에 있는 큰 바위.
- 큰밤섬 : 원산도 북쪽에 있는 산이다. 섬이 아니다. 큰밤섬과 선촌의 당산 줄기를 연결하여 원산도에서 가장 큰 간척지를 축조하였다.
- 큰산 : 원산도 도투머리 마을 서남쪽, 즉 대하 양식장의 남쪽에 있는 산이다.
- 큰산 : 원산도의 중앙부 구찌 마을 당산의 북쪽에 있는 산.
- 큰샘 : 원산도 선촌 마을 가운데에 있는 샘. 당샘의 동남쪽에 있다.
- 큰여 : 원산도 선촌 마을 북쪽 모퉁이 앞에 있는 바위 너덜.
- 큰여 : 원산도 진고지 까그모탕이 앞에 있는 간조 때 나타나는 바위 너덜.
- 큰이미고랑 : 원산도 풋살 남쪽에 있는 이미고랑을 말함. 1970년대까지 이선생이 가르치던 서당이 있었다고 한다.
- 큰이미재 : 큰이미고랑과 풋살을 연결하는 재.
- 큰참삭굴 : 원산도 풋살 서쪽 해안. 참새골과 풋살 마을 사이에 있다.
- 터진목 : 원산도 짐말 백사장의 중앙부. 바닷물이 출입하는 부분.
- 턱금말 : 도랫말의 다른 이름.
- 통개 : 원산도 사창 마을 남쪽 백사장 안쪽을 부르는 이름. 바닷물이 출입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팔죽섬 : 원산도 선촌 북서쪽에 있는 작은 섬.
- 풀자락 : 원산도 동쪽 부분의 남쪽 바닷속에 있는 높은 지형. 간조 때 모래로 된 높은 부분이 노출된다.
- 풋사리 : 원산도 풋살의 다른 이름.
- 풋살 : 원산도의 서쪽 부분 북쪽 해안에 있는 마을. 윗말과 안동네로 나뉜다.
- 풋살여 : 원산도 풋살 큰참삭굴 앞에 있는 바위 너덜.
- 하나시 : 원산도 선촌 마을 서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원산도의 최북단에 있는 마을이다. '하늬'와 관련되어 생긴 지명이다.
- 한양굴 : 원산도 동쪽 끝 가문여산과 당산 사이의 골짜기가 바다와 만나는 부분이다. 좁은 모래 백사장이 있다.



진촌 당집(2003)



오봉산 해수욕장(2008)



진촌 당집 안의 동물상(1970년대)



관가 앞. 우후 최창호비(2008)

10. 효자도리(孝子島里)

본래 오천군(鰲川郡) 하남면(河南面) 지역으로 소제미라고 불렀는데 한자 표기를 효자도(孝子島)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육도리(陸島里), 추도리(抽島里), 월도리(月島里), 소도리(蔬島里), 목도(鰲島), 안마도(鞍馬島), 흑도(黑島), 목도(木島), 허육도(虛陸島), 삼형제도(三兄弟島), 몽덕도(夢德島), 황도(黃島)를 병합하여 효자도리라 해서 보령군에 편입하였다.

- 검은여 : 효자도리 아래남섬(아래나무섬) 동쪽에 있는 작은 섬이다. 주민들은 ‘검은여’라고 부르고, 1:5000 지형도에는 황도(黃島)로 표기되어 있다. 최고봉이 해발 3.5m로 만조시에는 거의 물에 잠기고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
- 남섬 :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월도(달월이) 북쪽에 있는 두개의 섬이다. 주민들은 이 두개의 섬을 ‘남섬’이라고 부르는데, 북쪽의 것을 ‘위남섬’ 남쪽의 것을 ‘아래남섬’이라고 부른다. 국립지리원 발간 1:5000지형도에는 ‘검은여’라고 표기하고, 남쪽에

있는 노랑섬을 나무섬으로 표기해 놓았다. 해도에는 상목도, 하목도로 표기되어 있다. 간조 때에는 노랑섬, 월도와 연결된다.

- 노랑섬 : 효자도리 월도(달월이) 북쪽, 나무섬 남쪽에 두 개의 섬이 있는데 주민들은 이 두 섬을 ‘노랑섬’이라고 부르며, 북쪽의 큰 섬을 ‘윗노랑섬’ 남쪽의 작은 섬을 ‘아랫노랑섬’이라고 부른다. 두 섬은 간조 때 연결된다. 잡목이 자란다.
- 멩택이 : 효자도 본 섬 동쪽에 있는 작은 바위섬이다. 주민들은 ‘멩택이’라고 부르는데, 이 섬을 바라보는 마을 이름도 ‘멩택이’이므로 ‘섬멩택’이라고도 부른다.
- 삼형제도 :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빈육섬(허육도, 삼형제도라고도 함) 동남쪽에 연이은 3개의 바위섬이다. 바위 위에 풀이 자란다.
- 서산여 : 보령시 효자도리 육도(육섬) 동북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주민들은 ‘서산여’라고 부른다. 주변은 바위너덜로 되어 있으며 해발고도는 8.3m이다.
- 왓새섬 : 효자도리 허육도 동쪽, 월도 남쪽에 있는 섬이다. 주민들은 ‘왓새섬’이라고 하며, 1:5000 지형도에는 오도(鰲島)로 표기되어 있고 해도에는 ‘목도’로 표기되어 있다.
- 질뎡 : 효자도리 빈육섬(허육도) 동남쪽에 있는 섬이다. 양쪽이 높고 가운데가 낮은 지형을 하고 있어, 질뎡이라고 하고 안마도라고도 한다. 여름에는 외지 사람이 보트를 타고 들어와 피서를 즐기는 곳이다.

1) 소도(蔬島, 추섬)

안면도와 오천항 사이의 천수만 안에 있는 작은 섬들 중 가장 서쪽에 있는 섬이다. 주민들은 추섬이라고 하고 소도(蔬島)로 표기한다. 안면도 영목과는 수백 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마을은 섬의 북동쪽에 있다.

- 높사시 : 소도의 동쪽 끝 부분.
- 담부리끝 : 소도 마을과 아래끝 사이를 말함.
- 당산 : 소도 마을의 남서쪽에 있다. 원래 당집은 없었고 쪽나무 밑 바위에서 지냈다. 1960년대까지 지냈으나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정월 열사흘에 지냈다.
- 동아시 : 소도의 북쪽 끝. 빼섬과 마주하는 곳.
- 둘무뿌리 : 소도의 동남쪽 끝 부분.
- 목너머 : 소도 마을의 남쪽 언덕 너머 마을. 서너 가구가 거주한다.

- 소도동(蔬島洞, 추섬) : 소도 <1911, 朝鮮地誌資料>
- 아래끝 : 소도 마을의 서쪽에 있는 돌출부. 영목 맞은편의 동쪽이다.
- 아랫말 : 소도 마을의 서쪽 부분.
- 영목맞은짜 : 추섬 소도에서 영목과 마주하는 부분. 즉 추섬의 남서쪽.
- 윗말 : 소도의 동쪽 부분.
- 작은마과지 : 소도 마을 남서쪽 해안. 큰마과지의 동쪽 해안이다.
- 큰마과지 : 소도의 남서쪽 해안. 작은마과지의 서쪽이다. 마과지는 남쪽마을을 의미한다.



소도 당산(2007)



소도 팽나무(2007)

2) 월도(月島, 달월이)

천수만 입구에 있는 섬 중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다. 주민들은 달월이라고 하고, 월도(月島)로 표기한다. 면적에 비하여 인구가 많다.

- 농아배 : 월도 북쪽 해안에 있는 바위.
- 달바위 : 월도 북동쪽 큰여 북서쪽에 있는 바위 너덜.
- 똥무니 : 월도의 서남쪽 끝에 있는 섬. 똥무더기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밧주녀 : 월도 안주녀 남쪽에 있는 작은 바위 너덜.
- 안주녀 : 월도 동쪽에 있는 바위 너덜.
- 월도동(月島洞, 달우리) : 월도 <1911, 朝鮮地誌資料>
- 으뜸바래 : 월도 방과제 남쪽에 있는 바위 너덜.
- 큰여 : 월도 북동쪽에 있는 바위 너덜.



옛 월도분교(2007)



월도 양식장(2007)

3) 육도(陸島, 육섬)

천수만 입구 추도와 월도 사이에 있는 섬. 주민들은 육섬이라고 하고 육도(陸島)로 표기한다. 32가구까지 살다가 현재는 20여 가구가 거주한다. 섬의 남쪽에 마을이 있다.

- 개구락티 : 육도마을 서쪽 해안.
- 검은여 : 육도마을 동남쪽에 붙은 바위 너덜.
- 당너머 : 육도마을에서 당산 너머쪽 해안.
- 당산 : 육도마을의 동쪽에 있는 산. 이곳에는 당집은 없고 1970년대까지 음력 정월 초사흘 밤에 당제를 지냈다.
- 도장벌 : 육도남동쪽 해안.
- 독소산여 : 육도와 나무섬 사이에 있는 바위 섬. 소산여의 북쪽이다.
- 똥무니 : 육도 북쪽에 있는 작은 섬.
- 마당너머 : 육도 마을의 북쪽 해안.
- 목쟁이 : 육도 마을 북쪽에 있는 작은 섬.
- 소산여 : 육도와 나무섬 사이에 있는 바위 섬. 여소산여의 북쪽이다.
- 여소산여 : 육도와 월도 사이에 있는 바위 너덜.
- 육도리(陸島里, 육섬) : 육도. <1911, 朝鮮地誌資料>



육도 원경(2007)



육도 당산(2007)

4) 추도(抽島, 빼섬)

소도 동북쪽에 있는 섬이다. 주민들은 빼섬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추도(抽島)로 표기한다.

- 당산 : 추도 마을의 가운데에 있다. 당집은 없었고 1960년대까지 정월 초사흘에 당제를 지냈다.
- 도리끝 : 추도의 동북쪽 끝.
- 들물끝 : 추도의 동쪽 끝.
- 마당너머 : 추도 마을의 동북쪽 해안.
- 부흥끝 : 추도 마을 동남쪽 끝. 앞에 바위 너덜이 있다.
- 삼상지 : 추도 서쪽 해안.
- 우무너 : 추도 마을 북쪽에 있는 바위 너덜.
- 이스라지 : 추도와 육섬(陸島) 사이에 있는 바위 너덜. 간조 때 나타난다.
- 자갈밭 : 추도 마을의 동쪽 해안. 들물끝의 북쪽이다.
- 추도리(抽島里, 빼섬) : 추도 <1911, 朝鮮地誌資料>



옛 추도분교(2007)



추도 당산(2007)

5) 허육도(虛陸島, 빈육섬)

육도(陸島) 남쪽에 있는 좁고 긴 섬이다. 주민들은 보통 빈섬이라고 부르고, 허육도(虛陸島)라고 표기한다. 과거에는 육도에만 주민이 거주하고, 허육도에는 묘지만 있었다고 한다. 섬의 동북쪽 해안에 마을이 있다.

- 검은여 : 질맘의 서쪽에 있는 작은 바위 섬.
- 검은여 : 허육도 마을 동북쪽에 있는 바위 섬. 송녀의 동북쪽에 있다.
- 공동묘지 : 허육도 마을 서북쪽 산.
- 낚은터 : 허육도 큰마을의 남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
- 뒷거문여 : 허육도 마을 남서쪽에 있는 바위 너덜.
- 목도(鰲島) : 왁섬의 한자식 이름.
- 삼형제암(三兄弟岩, 삼형제바위) : 삼형제암은 하남면 육도 앞 바다에 있는데, 암석 3개의 길이가 모두 한 길이 넘고, 사람 3형제가 차례로 서 있는 모양이어서 불려진 것이다. <1911, 朝鮮地誌資料>
- 수문드리 : 허육도 삼형제바위 동쪽에 있는 바위 너덜.
- 송녀 : 허육도 마을 동쪽에 있는 바위 너덜.
- 송녀 : 허육도의 삼형제바위 동쪽 안마도와 수문드리 사이에 있는 바위 너덜.
- 신여 : 허육도 수문드리의 다른 이름.
- 안마도(鞍馬島) : 질맘의 한자식 표기.
- 왁섬 : 삼형제바위 동쪽에 있는 섬. 수문드리의 동쪽 달월이의 남쪽에 있다.
- 우문여 : 허육도의 서북쪽 끝에 있는 바위 섬.
- 질맘 : 허육도 남동쪽에 있는 작은 섬.



허육도 삼형제 바위(2007)



허육도 양식장(2007)

6) 효자도(孝子島, 소제미)

원산도의 북동쪽 가까이에 있는 섬이다. 주민들은 예부터 소제미라고 하였고 문헌에는 효자도(孝子島)라고 표기하였다.

- 간사지 : 효자도 마파지와 윗말 사이에 있다. 효자도 유일의 간척지이다.
- 공동묘지 : 효자도 마파지 마을과 명택이 마을 사이에 있는 산에 있다.
- 공판 : 효자도 마파지 마을의 서쪽에 있는 산능선이다. 옛날 나무하러 다닐 때 나무꾼이 모여 공치던 곳이다.
- 금광굴 : 효자도 뒷통개굴의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일제시대에 금을 채굴함.
- 남촌(南村) : 작은마파지의 다른 이름.
- 넓적바위 : 효자도 마파지 마을 서쪽에 있는 바위. 똥섬의 북쪽에 있다.
- 녹사리 : 효자도의 동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동쪽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녹사리뿌리 : 효자도 녹사리 마을 북쪽에 있는 돌출부. 굴이 있다.
- 높사시 : 녹사리의 다른 이름.
- 담치녀 : 효자도 섬명덕의 다른 이름. 홍합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보령 지방에서는 홍합을 담치라고 부른다.
- 당산 : 효자도 윗말의 북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윗당이 있다.
- 독굴 : 효자도 녹사리 마을 북쪽에 있는 해식동굴. 깊이가 10여m나 된다.
- 독집 : 독굴의 다른 이름.
- 돌부리 : 효자도 마파지 마을 서쪽, 우무녀의 남쪽에 있는 바위.
- 뒤통개 : 효자도의 북쪽 뒤통개굴 입구의 바닷물이 통하던 곳.
- 뒤통개굴 : 효자도의 북쪽 당산과 상봉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등너머 : 효자도 명택이 마을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 해안과 인접하였다.
- 등너머장벌 : 효자도 명택이 마을 남쪽 등너머의 해안 모래밭.
- 또랑섬 : 효자도 남동쪽 돌출부의 끝에 있는 섬. 간조 때 도랑을 건너야 들어갈 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똥섬 : 효자도 녹사리 마을 남쪽에 있는 바위 섬. 똥무더기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간조 때가 되면 본섬과 연결된다.
- 똥섬 : 효자도 마파지 마을의 중앙에서 서쪽으로 내민 돌출부 앞에 있는 작은 바위 섬. 똥무더기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마파지 : 효자도의 서남쪽에 있는 가장 큰 마을이다. 원산도의 선촌, 진고지와 함께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진고지와는 수백m에 불과하다. 선척장이 있어 효자도의 교통, 어업의 중심지이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멩택이 : 효자도의 동남쪽 해안가 마을.
- 멩택이빨땅 : 효자도 동쪽 멩택이 마을 북쪽 해안.
- 멩덕(明德) : 멩택이 마을의 한자식 표기.
- 목너머자갈밭 : 효자도 멩택이 마을 앞에 있는 작은 자갈로 된 해안.
- 목넘어골 : 효자도 마과지 마을과 윗말 사이에 있는 간척지의 반대쪽 골짜기. 멩택이와 녹사리 사이에 있다.
- 목넘어산 : 효자도 당산의 서쪽에 있는 산.
- 문선뿌리 : 효자도의 북쪽 끝. 돌출 부분.
- 밤섬 : 효자도 마과지와 윗말 사이에 있는 산. 섬의 동북쪽에는 아랫당이 있었다.
- 밧산 : 효자도 마과지 마을 동쪽에 있는 산기슭. 공동묘지의 서북쪽이고 큰샘과 어덕샘 사이에 있다.
- 병얼네골 : 효자도 공동묘지 산 남쪽 골짜기. 애기네산과의 사이에 있다. 해방무렵까지 초분과 애장이 많았던 곳이다.
- 상리(上里) : 윗말의 한자식 표기.
- 상봉 : 효자도 녹사리 마을의 북쪽에 있는 산이다. 삼각점이 있으며 높이는 46.8m이다. 레이더 기지가 있다.
- 샘건너 : 효자도 마과지 마을 동쪽 큰샘의 건너 지역.
- 서낭당이 : 작은마과지에서 멩택이 마을로 통하는 길의 공동묘지 쪽에 있다.
- 서당굴 : 효자도 마과지 마을의 큰마과지와 작은마과지 사이를 말함.
- 석두샘 : 효자도 북쪽의 녹사리 뿌리와 문선뿌리 사이의 해안에 있는 샘으로 민물이 솟아난다. 만조가 되면 바닷물에 잠긴다.
- 섬멩덕 : 효자도 멩택이 마을 앞에 있는 작은 바위 섬.
- 술뚝 : 효자도 멩택이 마을의 서북쪽 해안 모래 언덕을 말한다. 여름에는 피서객이 모인다. 보령지방에서 사구를 술등이라고 한다.
- 시녀 : 효자도의 북쪽 끝, 문선뿌리 북쪽에 있는 바위 너덜. 간조가 되면 나타남.
- 아랫당 : 효자도 마과지와 윗말 사이에 있는 밤섬의 동북쪽에 있는 당이다. 윗당에 제를 올린 다음 제를 지냈으며 각시당이라고도 한다.
- 애기네산 : 효자도 공동묘지 남쪽에 있는 산.
- 어덕샘 : 효자도 마과지 마을 동쪽 언덕에 있는 샘.

- 우무녀 : 효자도 마과지 마을 서북쪽에 있는 바위 너덜. 간조 때 나타난다.
- 원뚝 : 효자도의 간척지 둑이다. 마과지 마을과 윗말 사이에 있다.
- 윗당 : 효자도 윗말의 동북쪽 당산 꼭대기에 당집이 있다. 주변이 숲으로 울창하다. 당제는 정월 보름날 지내며 윗당에 제를 먼저 지낸 다음 아랫당에 제를 지낸다. 산신당이라고도 한다.
- 윗말포강 : 효자도 간사지의 동북쪽에 있는 소류지. 초등학교의 동남쪽에 있다.
- 윗뜰뿌리 : 효자도 마과지와 윗말 사이의 밤섬 서쪽에 있는 돌너덜.
- 작은마과지 : 마과지 마을의 남쪽. 선착장이 있다.
- 작은마과지빨망 : 효자도 마과지 마을과 멩택이 마을 사이의 남쪽 바닷가.
- 진여 : 멩택이 마을 남쪽 바닷속에 있는 바위 너덜. 간조 때 본섬과 연결된다.
- 큰마과지 : 마과지 마을의 북쪽.
- 큰산 : 효자도의 남동쪽 끝에 있는 산.
- 큰삼바위 : 효자도 멩택이 마을 서남쪽 해안에 있는 바위.
- 큰샘 : 효자도 큰마과지의 동쪽에 있는 샘.
- 통개 : 효자도 멩택이 마을 서북쪽 모래 언덕의 안쪽 지역이다. 바닷물이 통하여 통개라고 부른다.
- 통수바위 : 효자도 마과지 마을 서쪽에 있는 바위.
- 효자도리(孝子島里, 소지미) : 효자도. <1911, 朝鮮地誌資料>



옛 효자분교(2007)



효자도 간척지(2007)

도움말 주신 분(1996년 현재)

| | | | | | | | | | |
|------------|-----|------|------------|-------|---------|-----|-------------|---------------|-----|
| 김광열(60) | 오천면 | 갈현리 | 돌고개 | 718 | 공완수(72) | 오천면 | 오포리 | 지픈골 | 189 |
| 최진규(48) | 오천면 | 교성리 | 김신 | 869 | 오창근(46) | 오천면 | 외연도리 | 25 | |
| 김용배(55) | 오천면 | 교성리 | 산 5번지 | | 북경중(60) | 오천면 | 외연도리(2008) | | |
| 조덕만(59) | 오천면 | 교성리 | 산 34 | | 최홍무(68) | 죽정동 | 유성1차 | 105-302(2007) | |
| 허민희(65) | 오천면 | 교성리 | 82 | | 최연춘(72) | 대천동 | 285-1(느레거주) | | |
| 김성원(55) | 오천면 | 녹도리 | | | 김용복(62) | 오천면 | 원산도리 | 244 (천마지) | |
| 이금돈(46) | 오천면 | 녹도리 | 호도 9 | | 이동남(67) | 오천면 | 원산도리 | 1036 (구찌) | |
| 김성용(70) | 오천면 | 녹도리 | 254(2007년) | | 이종열(62) | 오천면 | 원산도리 | 1171(사창) | |
| 곽성의 씨의 어머니 | 광천읍 | 독배 | 거주 | | 최종우(66) | 오천면 | 원산도리 | 1479(짐말) | |
| 최성윤(41) | 오천면 | 삼시도리 | 17 | | 안종진(46) | 오천면 | 원산도리 | 1708(꽃살) | |
| 박금춘(57) | 오천면 | 삼시도리 | 35-2 | | 김용길(52) | 오천면 | 효자도리 | 허육도(2007) | |
| 최현철(64) | 오천면 | 소성리 | 동문밖 | 100 | 최재환(60) | 오천면 | 효자도리 | 소도 29 | |
| 강병현(66) | 오천면 | 영보리 | 412 | 갈매못 | 최월식 | 오천면 | 효자도리 | 월도 | |
| 민순식(61) | 오천면 | 영보리 | 484 | 가승구지 | 김창본 | 오천면 | 효자도리 | 육도 | |
| 편범석(45) | 오천면 | 영보리 | 190-1 | 중부들 | 전종오(65) | 오천면 | 효자도리 | 추도 29 | |
| 이병완(76) | 오천면 | 영보리 | 23 | 숫재 | 최순옥(50) | 오천면 | 효자도리 | 348 번지 | |
| 조철행(60) | 오천면 | 오포리 | 매미골 | 641-2 | 신형우(57) | 오천면 | 효자도리 | 199(2008년) | |
| 서우석(73) | 오천면 | 오포리 | 수청구지 | 582 | 윤석동(83) | 오천면 | 효자도리 | 342 번지 | |